

연구총서 01-14

•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

임 순 희

통 일 연 구 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북한문학은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이며 북한체제와 수령의 홍보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북한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북한문학의 주요 목적 및 기능은 대중교양에 있다. 북한문학은 ‘당의 사상적 무기’로서의 역할과 ‘인민대중 교화’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배가치의 정당성 지지와 대중선동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 기능 한다. 북한문학의 ‘수령형상창조’는 이와 같은 문학의 주요 목적 및 기능을 유일 독재체제의 확립 및 유지·강화에 적극 활용한 단적인 예다. 종래 북한문학은 ‘수령형상창조’를 주체문학 건설의 핵심과업으로 수행해 왔으며, 북한문학에서 수령의 ‘형상화’는 김일성 유일 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김일성 우상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래 현저하게 증대, 강화되고 있는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역시 북한주민의 김정일 이미지 형성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유지·강화와 관련해 중대한 의의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를 통해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가 북한주민의 김정일 이미지 형성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유지·강화에 미친 영향을 밝혀 논하고자 한다.

I. ‘수령형상창조’의 의의와 기본원칙

북한 문헌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뛰어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이며, 수령의 활동을

몸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수령의 위업을 받들어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 전반을 조직 영도하는 과정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혁명 업적을 쌓아 올린 위대한 영도자이다. 또한 후계자는 선행한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도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거 하에 북한 문학의 ‘후계자 형상창조’에 있어서는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해야 한다. 이른바 수령의 계승자를 형상한 문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형상문학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 이래 북한문학의 핵심과제로 수행되어 온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는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와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는 단 한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수령형상창조’에서와는 달리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에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문학에서 이른바 ‘수령형상창조’란 김일성과 김정일이 쌓아올린 혁명업적을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에 따라 잘 형상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의 의의와 목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기여, 역사문헌적 의의, ‘우리 식 사회주의’ 고수 및 강화 등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의의 및 목적은 결국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로 귀결된다.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 즉 수령형상 작품 창작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리·원칙은 다음의 아홉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하며, 특히 걸출한 사상이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과 정치가, 전략가, 영도의 예술가로서

의 위대성을 형상 해야 한다. 둘째,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형상 해야 하며, 특히 혁명전사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한다. 또한 수령의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형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령의 내면세계, 심리세계를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한다. 셋째, 수령의 형상은 반드시 수령, 당, 대중의 3위 일체의 원칙에서 당과 대중과의 연관 속에서 형상 해야 한다. 넷째, 수령의 위대성은 체계적·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서 형식의 장편소설 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수령에 대한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반영해야 하며, 작품의 양상은 밝고 숭엄해야 한다. 여섯째, 등장인물의 성격을 실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인간학적 요구에 맞게 개성화해야 한다. 일곱째,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수령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물의 형상화도 중요하다. 아홉째, 후계자 김정일을 수령 김일성과의 관계 속에서 형상 해야 한다.

II.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북한문학에서 김정일은 ‘충효의 화신,’ ‘위대한 사상·문예이론가,’ ‘사색하는 지도자,’ ‘비범한 예지와 담력의 전략가,’ ‘탁월한 영도의 예술가,’ ‘하늘이 낸 위인,’ ‘사랑의 화신’ 등으로 형상되어 있다.

1. 충효의 화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위업을 계승한 후계자의 기본 품성이다. 수령의 계승자는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

드는 것을 근본사명으로,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으로 삼고 인민대중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당과 혁명의 지도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문학작품에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김정일의 가장 큰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일을 ‘충성과 효성의 화신’으로 형상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의 문학작품에서는 특히 ‘수령의 영생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충효의 화신으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이 형상되고 있다.

2. 위대한 사상·문예이론가

김정일의 사상·문예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은 ‘주체사상’의 정식화와 ‘수령론’ 창시, ‘주체문예이론’의 정식화와 ‘수령형상창조이론’의 창시, 그리고 모든 장르를 망라한 문예작품 창작의 지도 등에 근거해 강조된다. 북한 문학작품들 가운데 김정일의 사상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을 형상한 시와 소설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김정일의 문예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은 많은 편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 창작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김정일을 문학예술의 영재로서 찬양하기도 한다.

3. 사색하는 지도자

김정일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에서는 김정일을 매사에 “끊임없이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침착한 성품의 지도자로 형상하고 있다. 소설작품들에서 김정일은 말보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해도 깊은 사색을 하고 난 후에 행동하며, 그가 지니고 있는 탁월한 정치·전략가로서의 비범한 예지는 심오한 사색의 산물로서 나타난다. 또한 소설에서는 김정일을 사색하는

지도자로서 형상 하는 데 있어 특히 서정성을 크게 강조한다.

4. 비범한 예지와 담력의 전략가

북한 문학작품에서 김정일은 비범한 예지와 담력을 지닌 전략가·정치가로 형상 되며, 이를 통해 그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임을 강조한다. 비범한 예지와 담력을 지닌 탁월한 영도력의 소유자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은 수령·당·대중의 3위일체의 관계에서 형상 되는 바, 소설에서는 언제나 인민 속에서 활동하는 김정일의 풍모를 그린다. 또한 김정일 ‘형상창조’ 문학작품에서는 비범한 예지와 담력을 지닌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김정일을 국운이 걸린 위기의 순간에도 여유로움을 보이는 지도자로 형상한다.

5. 탁월한 영도의 예술가

북한은 김정일을 일컬어 ‘령도의 예술가’라고 한다. 수령의 영도에서 기본은 혁명의 전략과 노선을 세우고 그 관철으로 당과 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며, 이와 같은 영도의 기본을 갖춘 지도자 김정일은 ‘주체의 령도자,’ ‘단합의 령도자,’ ‘변혁의 령도자,’ ‘비약의 령도자’라고 한다. 탁월한 영도력을 지닌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대표적 작품으로는 총서 <불멸의 향도> 중 리종렬의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와 총서 <불멸의 향도> 중 박태수의 장편소설 <서해전역>이 있다.

6. 하늘이 낸 위인

북한은 김정일이 탄생한 첫날부터 ‘백두광명성,’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떠받들리고 그 탄생이 전민족적 경사로 축복된 하늘이 낸 위인이라고 한다. 김정일의 탄생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과 민족의 장래 운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며 민족적 대 경사라는 것이다.

북한의 시작품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김정일의 탄생의 의의와 하늘이 낸 위인의 위대성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다. ‘하늘이 낸 위인’으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은 특히 『조선문학』에서 장기 연재되고 있는 ‘백두광명성전설’에서 ‘전설’의 형태로도 형상되고 있다.

7. 사랑의 화신

문학작품에서 김정일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형상 된다. 소설작품에서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김정일의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시와 소설에서 형상 되는 김정일의 친아버지로서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이른바 김정일의 ‘현지도 노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또한 소설에서는 인덕정치·광복정치의 위대성을 형상 하여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김정일을 찬양한다.

III. 김정일 ‘형상화’의 특징

북한 문학작품에서 김정일 ‘형상화’는 ‘수령형상창조’의 원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걸출한 사상이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비롯해 ‘정치가·전략가·영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 등 ‘수령의 위대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도 김일성과 다름없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이른바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에 있어 형상의 핵이라고 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형상함으로써 김정일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형상창조’와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에 있어 차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뿐이라고 하는 북한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 즉 김정일 ‘형상화’에 있어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외에도 다른 두 가지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 후계체제 정통성 구축 및 강화와 김일성과의 동일시가 그것이다. 북한은 문학작품에서의 김정일 ‘형상화’를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구축, 강화코자 했으며, 또한 김정일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해 김일성과의 동일시를 적극 모색,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IV. 평가: 김정일 ‘형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성과: ‘인민적 수령’의 이미지 형성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는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충효의 화신으로서, 걸출한 문예이론가이자 문학예술의 영재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함으로써 김일성과의 차별화를 피하는 한편,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크게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소

재 및 내용을 김일성 ‘형상화’ 작품들과 거의 동일하게 한다는 데에 특성이 있다. 이 외에도 김정일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김정일 역시 인민과 기쁨, 고통을 함께 하는 지도자로 그리면서도 김일성보다 더 눈물이 많고 정이 많으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 늘 사색하는, 사려 깊은 지도자로 형상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서 김정일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형상되어 있다.

김정일은 또한 음악을 매우 사랑하며 항상 음악과 함께 하는 지도자로 그려져 있다. 또한 김정일 ‘형상화’ 작품들에서는 특히 김정일을 특히 미국과의 대결에서 강한 지도자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옹호고수 해 나갈 탁월한 영도의 예술가로 형상함으로써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있으며, 군부대 현지도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통해 김정일의 애병사상과 군 중시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 김정일을 형상 하는 데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김정일을 매우 소박하고 소탈한 지도자, 푸근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지도자로 형상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소설에서 김정일을 매우 소박하고 소탈한 지도자, 푸근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지도자로 형상함으로써 그에 대한 ‘인민적 수령’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은 문학작품에서의 김정일 ‘형상화’를 통해 김일성과 차별화 되면서도 동일한 ‘수령’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김일성보다 더 ‘인민적’인 수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김정일 ‘형상화’의 주요 성과로서 나타난 ‘인민적 수령’의 이미지는 ‘인덕정치·광폭정치,’ ‘선군정치,’ ‘음악정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 문제점: 사실의 왜곡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수령형상창조’의 역사문헌적 의의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은 수령의 위대성과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역사문헌적 의의가 크며, 따라서 수령형상 문학작품에서는 역사문헌적 의의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중요 인물의 관계, 사건줄거리 등을 역사적 사실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 해야 하고, 작품에서 허구적 형상 창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작품의 역사문헌적 의의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령형상창조’에 있어서는 “작가들이 사실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식의 수령형상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 ‘수령형상창조’ 문학작품은 사실적 자료에 기초하기보다는 사실마저 굳이 왜곡하며, 수령과 맞서는 ‘적’들을 심하게 희화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북한의 현실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198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1990년대를 통해 더욱 악화된 극심한 식량난과 기아사태,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 실태 등은 전지전능하고 만사형통인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김정일의 인덕정치의 위대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문학작품에 형상되어 있는 김정일의 능력과 현실에서의 김정일의 능력은 엄청난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북한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유지·강화와 ‘수령 김정일’의 이미지 형성이라는,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가 지닌 정치적 의도를 구현하는 데 있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로 모면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 문학작품에서 형상되고 있

는 김정일의 인덕정치·광폭정치의 위대성이 현실과 크게 차이가 있음은 북한 사회의 성분별 계층구조와 적대계층(북집군중)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서도 잘 나타난다.

V. 결 론

북한 문학작품에서의 김정일 ‘형상화’를 분석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바,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유지·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문학작품에서의 김정일 ‘형상화’를 통해 북한은 김일성과 차별화 되면서도 또한 동일한 ‘인민적 수령’의 이미지를 만들어내 김정일 후계체제로 하여금 ‘주체혈통’의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토록 하였으며, 나아가 후계체제의 유지·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우상화에 있어서는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편이며 특히 문학예술 부문에서 천재라고 인식되어 있기는 하나, 그는 호전적이며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날카로운 성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 김일성의 힘으로 권력을 세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감정은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또한 대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형상화’ 작품을 매우 재미있게 읽으며 작품내용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편인데 반해, 김정일 ‘형상화’ 작품에 대해서는 꾸며낸 신화 같다고 하여 믿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가 투쟁업적도 없고 군부만을 우대하며, 경제난을 초래했다는 것 때문에 일반주민들 사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 목 차 -

I. 서론	1
II. ‘수령형상창조’의 의의와 기본원칙	4
1. 의의와 목적	5
2. 기본원칙	14
III.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30
1. 충효의 화신	32
2. 위대한 사상·문예이론가	40
3. 사색하는 지도자	45
4. 비범한 예지와 담력의 전략가	48
5. 탁월한 영도의 예술가	51
6. 하늘이 낸 위인	54
7. 사랑의 화신	59
IV. 김정일 ‘형상화’의 특징	71
1. 후계체제 정통성 구축 및 강화	71
2. 김일성과의 동일시	78
V. 평가: 김정일 ‘형상화’의 성과와 문제점	82
1. 성과: ‘인민적 수령’의 이미지 형성	82
2. 문제점: 사실의 왜곡	88

VI. 결 론 100

참고문헌 102

I. 서론

북한문학은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이며 북한체제와 수령의 홍보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북한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북한문학의 주요 목적 및 기능은 대중교양에 있다. 북한문학은 ‘당의 사상적 무기’로서의 역할과 ‘인민대중 교화’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배가치의 정당성 지지와 대중선동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 기능 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는 열렬한 선전자, 균중을 교양 하는 참다운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문학의 ‘수령형상창조’는 이와 같은 문학의 주요 목적 및 기능을 유일 독재체제의 확립 및 유지·강화에 적극 활용한 단적인 예다.

북한은 문학작품에서 보통사람과는 다른 품성을 지닌 ‘수령의 위대성’을 그려냄으로써 수령의 이상화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통해 유일 독재체제의 확립 및 유지·강화를 도모해 온 것이다.

종래 북한문학은 ‘수령형상창조’를 주체문학 건설의 핵심과업으로 수행해 왔으며, 북한문학에서 수령의 ‘형상화’는 김일성 유일 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김일성 이상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1990년대이래 현저하게 증대, 강화되고 있는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역시 북한주민의 김정일 이미지 형성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유지·강화와 관련해 증대한 의의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의 대내외 정세가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 및 유지·강화에 불리하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지위에 별다른 변동이 없음은 일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정일 후계체제의 지지 기반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가 김정일 후계체제 지지 기

반 조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를 통해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가 북한주민의 김정일 이미지 형성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유지·강화에 미친 영향을 밝혀 논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주로 1990년대 이래 발표된 북한의 문학작품 가운데 김정일을 형상한 소설과 시를 1차 자료로 하며, 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물들을 보충 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기로 한다.

가요, 영화, 연극, 문학 등 북한 문학예술의 모든 장르에서 창작의 기본과제는 ‘수령형상창조’이다. 따라서 김정일 ‘형상창조’ 연구는 음악, 영화, 연극 등을 분석자료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문학을 분석자료로 선택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중시해서이다. 첫째, 북한은 ‘수령형상창조’를 문학의 지상과업으로 규정하고 있다.¹⁾ 북한의 음악, 영화, 연극 등에서도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 하는 것이 작품창작의 기본과제로 되어 있기는 하나 북한은 특히 문학작품에서의 ‘수령형상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이른바 ‘수령형상문학’이라는 북한 특유의 문학용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의 저술인 「연극예술에 대하여」, 「음악예술론」, 「영화예술론」 등에서는 「주체문학론」에서와 같이 ‘수령형상창조’ 작품을 창작의 기본과제로 역설한 바 없으며, 또한 ‘주체적 문예리론연구서’로서 「수령형상문학」²⁾이 발간되었음은 북한이 문학작품에서의 ‘수령형상창조’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있음을 말해 준다. 둘째, 북한 문헌에 따르면, “문학은 사람들을

1)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26~151.

2)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91).

미학정서적으로 교양한다는 점에서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미술 등 다른 예술형태들과 공통성”을 가지나 “문학은 언어를 형상창조의 기본 수단으로 하는만큼 인간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 수 있다.”³⁾고 하며,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묘사, 세부묘사라고 한다.⁴⁾ 이와 같은 북한문학의 특성에 근거할 때 북한소설은 등장인물에 관한 심층분석 및 이해를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셋째, 북한 문학작품은 다른 문예장르에 비해 보다 더 다량으로 창작된다는 점에서 분석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 364.

4) 오승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의문학형태 이론에 대하여,” 『조선문학』 (1993.9), p. 32.

II. '수령형상창조'의 의의와 기본원칙

북한 문헌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뛰어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이며,⁵⁾ 수령의 활동을 몸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수령의 위업을 받들어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 전반을 조직 영도하는 과정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혁명 업적을 쌓아 올린 위대한 영도자이다. 또한 후계자는 선행한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도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거 하에 북한 문학의 '후계자 형상창조'에 있어서는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해야 한다.⁶⁾ 이른바 수령의 계승자를 형상한 문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형상문학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 문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두 수령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1970년대이래 북한문학의 핵심과제로 수행되어 온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는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와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는 단 한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수령형상창조'에서와는 달리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에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정일의 저술 「주체문학론」은 수령의 계승자의 형상은 수령형상의 모든 내용을 다 갖추면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형상의 핵으로 한다는 데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수령이 개척한 위업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고 완성해 나갈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고 있

5)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39.

6) 위의 책.

는 것만큼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과 효성을 다하게 되는 바, 후계자 형상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덕목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의 공식 입장에 따라 이 논문 주제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창조’의 의의와 목적, ‘김정일 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은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의 의의와 목적, 기본원칙에 준해 논하기로 한다.

1. 의의와 목적

북한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은 ‘수령이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업적’이다. 여기에서 수령은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 모두를 지칭한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수령은 인류 역사에서 오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뿐이시다. …오늘 우리 문학 앞에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형상창조 사업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과 함께 위인 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품위 있고 격이 높게 창조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첫째가는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⁷⁾

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 문학에서 이른바 ‘수령형상창조’란 김일성과 김정일이 쌓아올린 혁명업적을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⁸⁾

7) 김려숙,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조선문학』 (1997. 2), p. 63.

8) 생리란 형상을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서로 조화시키고 살아숨쉬게 하며 생활을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진실하게 재현하는 원리를

에 따라 잘 형상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문예이론서인 『수령형상 문학』에서는 ‘수령형상’이란 “수령의 혁명력사와 숭고한 품모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예술적 화폭에 그려 수령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감득하게 하는 것”⁹⁾이라고 한다.

김정일의 저술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수령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주체문학 건설의 기본인 기본이다.¹⁰⁾ 노동계급의 문학예술의 사명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문학예술에 구현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데 있는 바, 수령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할 때 주체문학이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위업에 복무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

북한의 공식입장에 비추어 볼 때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가 지니는 의의와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①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가 지니는 의의와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 함양에 있다. 이는 북한의 공식입장에서도 나타나는 바, 문학에서 ‘수령형상창조’는 인민들에 대한 혁명적 교양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 하는 데서 기본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함양이라고 한다. 노동계급의 문학예술에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예술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세워주려는 것이며,¹²⁾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

말하며, 작가의 주관적 의도는 작품의 생리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40.

9)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 157.

10) 위의 책, p. 126

11) 머리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작가들의 첫째가는 사명,” 『조선문학』(1993. 4), p. 4.

12)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 168.

수령관’을 정립케 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도덕화, 양심화, 생활화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혁명적 수령관’ 확립을 위해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하므로 수령형상 작품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빛나는 역사와 불멸의 업적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수령의 위대성과 고매한 품모를 인식하고 수령을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학 작품에서 수령의 혁명역사와 업적을 잘 형상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수령에 대한 존경심과 흠모감을 불러일으키며 수령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려는 충성심을 함양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문예부문에서의 ‘수령형상창조’를 강조하기 시작한 처음에¹³⁾ 김정일이 행한 한 담화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오늘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 데 대하여 말하면서 수령형상창조문제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수령형상창조문제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¹⁴⁾

-
- 13) 1966년, 김정일은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을 의미합니다”라고 밝힘으로써 문예창작에서의 수령형상창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김정일선집』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12.; 수령형상 문학은 1960년대 초 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의 창작을 거쳐 1960년대 후반기부터는 소설문학과 서사시문학, 희곡과 영화문학 등 여러 형태 분야에서 적극 창작됨으로써 더욱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안희열, “비범한 예지로 수령형상 창조의 원리를 밝히시여,” 『조선문학』 (2000. 9), p. 13 참조.
- 14) 김정일,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43;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란, 전당과 전체인민을 수령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고화 단계에 들어선 1990년대 들어 '수령형상창조'에서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한 '수령의 후계자형상창조'를 새롭게 공식화하고, 김일성 사후에는 '수령의 후계자형상창조'를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드는 길”¹⁵⁾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음도 '수령형상창조'의 정치적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 및 김일성 유일 체제 확립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문학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북한 문학에서 '수령형상창조'는 인민들을 수령에게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최상의 수단이며,¹⁶⁾ 수령형상 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 하는 데서 힘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¹⁷⁾ 북한은 '수령형상창조'를 통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라는 문학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령형상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창작집단을 설립 하였던 바, 문학부문에서의 '4.15문학 창작단'과 영화부문에서의 '백두산 창작단'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형상창조' 전문 창작집단 설립은 '수령형상창조' 사업을 당의 유일적 지도 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졌다.

북한에는 두 수령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 시기 문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창작 실천적인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튼튼히 고수되고

15) 최길상,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기치,” 『조선문학』 (1997. 1), p. 9.

16)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 9.

17) 머리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문학』 (1992. 11), p. 6.

우리 조국의 부강 번영 속에 더욱 빛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힘있게 부각하는 것”¹⁸⁾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는 김일성보다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다.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가지고 문학형상으로 ‘수령결사옹위’의 가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문학에서 ‘수령형상창조’의 첫 번째 의의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잘 구현한 작품으로 송가 <김정일 장군의 노래>을 들고 있다. 북한은 이 송가에 대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환호성을 가사의 사상적 핵으로 제시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이 시야 말로 아버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내이시는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인민의 락원으로 가꾸시는 행복의 창조자이시며 사회주의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혁명 위업을 충대로 지키시는 정의의 수호자이시라는 사상적 내용을 소리높이 구가”¹⁹⁾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대해서도 “겨레와 인민에게 김일성 민족 성원된 긍지와 자부심, 또 한 분의 백두 위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아버지가 수령님의 유훈을 드팀없이 관철하고야 말 투지를 가다듬게 하고 있다.”²⁰⁾라고 평가한다.

②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기여

북한은 문학이 ‘수령형상창조’를 첫 번째 과업으로 수행함으로써 온

18)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조선문학』 (1998. 9), p. 20.

19) 리창유,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 『조선문학』 (1998. 5), p.

20) 방연승,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불멸의 서사시,” 『조선문학』 (1995. 6), p. 24.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북한의 당 및 국가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²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²²⁾하여야 한다. 주체사상 구현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모든 가치판단 및 행위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균중을 교양하는 참다운 교양자’이며 ‘당 정책의 옹호자·대변자’인 북한의 작가들로 하여금 이른바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를 문예 창작의 기본과제로서 수행토록 한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운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있으며, 북한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최고 전형은 김일성과 김정일, 두 수령을 일컫는다. 따라서 북한은 문학이 ‘수령형상창조’를 첫 번째 과업으로 수행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문학은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 복무하는 사상적 무기인 것만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사업을 총적 목표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다른 하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체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

2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 p. 40.

2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 124.

23)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26.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최고전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⁴⁾

③ 역사문헌적 의의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은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역사문헌적 의의가 크다. 따라서 역사문헌적 의의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수령형상 문학작품 창작에서는 중요 인물의 관계와 사건줄거리를 비롯한 작품의 기본대를 역사적 사실에 맞게 세우고 진실하게 형상 해야 한다. 허구적 형상 창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작품의 역사문헌적 의의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형상작품은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역사문헌적 의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원칙이며 주체문학의 요구²⁵⁾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같은 역사문헌적 의의로 인해 북한의 문예작가들에게 있어 ‘수령형상창조’ 작품 창작은 시대의 요구이며 지상의 과업²⁶⁾이다. “수령과 지도자동지를 형상하는 사업은 직접적인 목격자와 체험자가 살고 있는 우리 대에 다 완성되어야”²⁷⁾ 하는 시대적·선차적 과업이기 때문이다.

④ ‘우리 식 사회주의’ 고수 및 강화

1980년대 말 이래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및 구소련 해체에 즈음하

24) 리수립, “수령형상문학을 끊임없는 개화발전으로 이끄는 불멸의 사상 리론,” 『조선문학』 (1993. 7), p. 31.

25) 김일수,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한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시적형상,” 『조선문학』 (1998. 3), p. 9.

26) 머리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6

27)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38.

여 북한은 주민들에 대해 시대적 추세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한편 그에 따른 북한체제 옹호·고수 의지를 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북한문학의 선전·선동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과업으로 수행된 것이 '수령형상창조' 작업이다.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세계 반동들이 악랄한 공세하에서 ... 이 심각한 역사적 국면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지키고 빛내여 가는 근본담보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일심단결 하도록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핵심으로 한 당의 사상적 무기로 더욱 강화 발전 되여야 한다.²⁸⁾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인간이 지닌 담력과 배짱에 대하여 형상적으로 깊이 있고 감동 깊게 재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수령님께서 지니신 그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책동하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온갖 원썩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자의 대행진으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고무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담력과 량만을 가지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⁹⁾

위에서와 같이 문학에서의 '수령형상창조'를 통한 체제고수 및 강화 의지 독려는 199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김일성 사망이후로 '우리 식 사회주의' 고수 및 강화에 의의를 둔 북한문학의 '수령형상창조'는 김일성보다 김정일 형상화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28) 리수립, "수령형상문학을 끊임없는 개화발전으로 이끄는 불멸의 사상리론," p. 32.

29) 머리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는 문학적형상으로 천세만세 길이 전하자," 『조선문학』 (1997. 4), p. 7.

있다. 김정일을 형상한 작품들이 김일성 사망이후 총서 <불멸의 향도> 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³⁰⁾ ‘우리 식 사회주의’ 고수 및 강화와 관련해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대표작으로는 총서 <불멸의 향도> 중의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가 있다. 이 작품에 대해 북한은 김정일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불패의 보루로 다져져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승승장구 하고 있으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도 주체의 항로를 따라 새롭게 재건 되고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내닫게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제기하고 그것을 1980년대 하반기와 1990년대 초의 격변하는 사회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천명”한 사상 예술적 수준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³¹⁾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의 의의와 목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기여, 역사문헌적 의의, ‘우리 식 사회주의’ 고수 및 강화 등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의의 및 목적은 결국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로 귀결된다. 이는 ‘수령형상창조’ 작품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 창작 방법인 주체사실주의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³²⁾인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창작방법이며 문예창작에서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30) 김일성 생전에는 공개적으로 발행되지 못하다가 김일성 사후인 1996년에 4.15창작단 소속작가인 백남룡이 지은 <동해천리>가 책 표지에 <불멸의 향도 총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서울: 깊은샘, 2000), p. 393.

31) 리창유, “자주위업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불멸의 형상,” 『조선문학』 (1998. 4), p. 44.

32) 리수립, “수령형상문학을 끊임없는 개화발전으로 이끄는 불멸의 사상 리론,” p. 25.

주체사실주의 방법에 의거한 작품 창작에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을 “자기 민족의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 민족이 좋아하는 형상 수단과 수법, 형상기교”³³⁾인 민족적 형식에 담는다. 여기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내용, 인간의 제일생명은 정치적 생명이며 사람의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 주체의 혁명관과 인생관,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세워나가는 내용을 비롯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발양시키고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내용이 포괄”³⁴⁾되어 있고, 특히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체사실주의가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주체문학론』은 문학예술 작품이 담아야 할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자주적인 인간,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전형을 통하여 실현되는 바, 주체사실주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체사실주의가 창조한 자주적 인간의 가장 숭고한 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 견결한 혁명가”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실주의 창작에 있어 궁극적인 의의와 목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구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기본원칙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합리화의 이론적 근거인 북한의 ‘수령관’에 따

33)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14.

34) 위의 책, p. 108.

르면 수령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적 복무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 속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정치적 영도자이며,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한 당의 최고영도자이다.³⁵⁾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수령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수뇌이며, 정치적 생명의 어버이로서 인민대중에게 영생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이므로 그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³⁶⁾ 『주체문학론』에서는 이와 같은 수령의 존재를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최고전형”³⁷⁾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는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령은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며 위대한 인간의 최고전형인 바, 이는 노동계급의 수령이 참다운 인간의 두 측면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령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으로서 참다운 인간의 두 측면인 정치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전형의 귀감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 문예창작에 있어 ‘수령형상창조’란 위에서와 같은 수령의 존재를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에 따라 잘 형상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란 수령형상 작품 창작에 있어 지켜야 할 원리·원칙을 뜻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수령형상 작품에만 고유한 생리가 있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수령의 형상은 일반공산주의자의 형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수령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

35)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324.

3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참조.

37)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26.

인민대중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지향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는 바, 이와 같은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고유한 생리가 있게 된다고 한다. 둘째, 주체적 문예이론이 밝힌 바와 같이 노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지만 문학에서는 추상적인 인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을 그려야 하므로 노동계급의 수령을 추상적인 존재로 그려서는 안되는 바, 이와 같이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그리지 말아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 수령을 형상 하는 작품은 자기의 고유한 생리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³⁸⁾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 즉 수령형상 작품 창작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리·원칙은 다음의 아홉 가지로 집약된다.

①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

북한 문헌을 통해 보면 수령의 위대성 형상이 문학의 '수령형상창조'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가장 위대한 인간, 가장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수령의 모든 자질과 품모를 특징짓는 것이 바로 위대성이기 때문이다.³⁹⁾ 수령의 위대성이란 수령이 지닌 사상의 위대성, 영도와 품모의 위대성,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의 위대성 등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수령형상의 교양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 바, 예술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세워주기 위해 수령의 위대성 형상을 '수령형상창조'에서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⁴⁰⁾

'수령형상창조'에 고유한 생리에 따르면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38) 박춘택,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 작가의 형상적탐구," 『조선문학』 (1993. 4), p. 37.

39)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 164.

40) 위의 책, p. 168.

형상 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강조해야 한다.

첫째, 걸출한 사상이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잘 형상 해야 한다.

비범한 예지를 한 몸에 체현한 위대한 사상이론가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있게 반영해야 하며 그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이 명백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걸출한 사상이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한 형상을 잘 형상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으로는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혁명의 련명>과 <은하수>가 있다. 이 두 작품들은 1920년대 후반기 주체사상이 어떻게 창시되었으며 그것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규명한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걸출한 사상이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데 있어서는 사상이론 창시자로서의 위대성뿐만 아니라 오랜(넓은) 인테리를 교양 개조하는 사상이론적 예지를 지닌 수령의 위대성을 강조해야 한다. 사상이론의 창시과정만이 아니라 수령이 오랜 인테리를 교양 개조하는 사상이론적 예지를 깊이 있게 형상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이와 같은 수령의 사상이론적 예지를 형상한 걸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수령은 복잡한 인생행로를 걸어 온 지식인들에게 과거(자본가 출신, 일제치하에서 일본기업에 복무,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를 묻지 않고 오직 그들의 애국심을 믿으며 그들 모두를 사랑과 믿음으로 포용하여 혁명의 편에 서게 한다. 『주체문학론』은 이 작품에 대해 넓은 인테리를 교양개조하고 새 인테리와 민족간부를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현명한 영도 과정을 통해 수령의 빛나는 사상이론적 예지를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¹⁾

둘째, 정치가, 전략가, 영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을 형상 해야 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계급의 수령은 대중의 능숙한 조직자이며 탁월한 영도자이다. 수령은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과 구체적 정황에 맞는 투쟁구호를 제시하고 능숙한 영도방법과 세련된 지도로 인민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위대한 영도자이다. 이와 같은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정치적 수령으로서의 걸출한 풍모를 보여주도록 형상 해야 한다. 수령의 영도 풍모를 보여주는데 있어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깊이 있게 보여주도록 형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에서 제기 하는 문제는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 있는 형상과제, 탁월한 수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수령이 문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형상함으로써 수령의 탁월하고 비범한 영도 풍모를 격이 있게 형상 해야 한다. '수령형상창조' 문학 작품에서는 탁월한 수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형상과제들로 지식인문제, 토지개혁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북한 문학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 하는 데 있어서는 수령의 덕성을 형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멸의 업적을 형상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강조된다. 무릇 장군의 빛나는 업적은 주로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바,⁴²⁾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외투쟁업적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수령형상창조' 작품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6.25전쟁, 김정일의 대미투쟁 등이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김정일의 불멸의 업적 형상에서는 특히 1993년 봄의 '조미핵대결전'(북한의 NPT탈퇴과정)을 다룬 작품이 여러 편

41)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30.

42) 장형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거둔 혁신적 성과,” 「조선문학」 (1998. 3), p. 42.

발표되었다.

②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형상

북한이 주장하는 바, 수령은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한 품성, 끝없이 인자한 인품, 아량 있는 포용력과 넓은 도량, 고결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일관되어 있는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닌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또한 노동계급의 수령은 위대한 정치적 영도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다.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수령의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잘 형상 해야 하며 특히 혁명전사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한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더 잘 형상 하려면 “혁명전사와 인민에게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⁴³⁾는 것이다. 또한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형상 하는 데 있어서는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 품모를 형상해야 한다.

수령의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형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령의 내면세계, 심리세계를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한다. 수령의 인간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내면세계를 펼쳐 보여주는 데서 보다 많이 발현되므로 수령의 참다운 인정세계를 깊이 있고 심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령형상창조’ 작품에서는 수령이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기울이는 아버지 사랑을 형상적으로 깊이 그려내고 체험세계와 심리적 굴곡과정을 감명 깊게 묘사하는 것이 수령형상 작품으로서의 품격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⁴⁴⁾

43) 머리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작가들의 첫째가는 사명,” p. 5.

44) 박춘택,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 작가의 형상적탐구,” p. 39.

또한 수령형상 작품 창작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 사색을 거듭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심오한 내부적 체험 세계를 형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탁월한 전략가의 비범한 예지는 심오한 사색의 산물이므로 사색 과정을 보여주는 심리묘사는 인물의 예지를 형상 하는 데서 힘있는 형상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③ 수령의 형상은 반드시 수령, 당, 대중의 3위 일체의 원칙에서 당과 대중과의 연관 속에서 형상

이는 3위 일체의 관점과 입장에 확고히 서서 수령을 형상 해야만 수령을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 정당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학 작품에서 노동계급의 수령을 3위 일체의 관계에서 형상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인민 속에서 활동하는 수령의 풍모를 그리는 것이다.⁴⁵⁾ 수령은 한 평생을 근로인민대중 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익을 첫 번째로 철저히 옹호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승리로 이끌어 온 근로인민의 자애로운 위대한 어버이이며, 수령의 위대성, 위인의 풍모는 인민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빛을 뿌리기 때문에⁴⁶⁾ 언제나 인민 속에서 활동하는 수령의 풍모를 형상 해야 된다는 것이다. 북한 문학에서 인민 속에서 활동하는 수령의 풍모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지지도의 노정에 깃든 사연들'을 소재로 하여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 중의 장편소설 <동해천리>가 있다.

④ 수령의 위대성은 체계적·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

45)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134~135.

46) 김려숙,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 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p. 63.

체계적·전면적인 수령의 위대성 형상은 김정일의 독창적 이론이라고 하는 총서 형식의 장편소설 창작으로 구현되고 있다. 김일성의 위대성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와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가 그것이다. 북한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수령의 위대성 형상에 있어 총서 형식의 장편소설 창작이 강조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수령형상작품을 중요한 역사적 사변들을 중심으로 하여 단계별로 창작하는 것은 수령의 혁명역사를 정연한 체계성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매 작품들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둘째, 수령의 혁명사상과 영도력, 덕성으로 사람들을 교양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혁명역사를 전면적으로 형상 해야 하며 그것도 정연한 체계성을 가지고 형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수령의 혁명역사는 가장 탁월한 영도자, 가장 위대한 인간의 영광 찬란한 역사로서 그와 관련된 어느 한 사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령의 혁명역사는 단계별로 체계적·전면적으로 형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총서형식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일대기식, 전기식을 철저히 반대하면서도 수령의 생애에 있는 중요한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체계성 있게 형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⁴⁷⁾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총서 형식의 작품 창작에서는 작품들 사이에 주제와 인물선, 사건선 등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이는 하나의 수령을 주인공으로 하고 수령의 혁명역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⑤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수령에 대한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반영해야 하며, 작품의 양상은 밝고 숭엄해야 함.

47)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 269.

문학의 수령형상창조에서는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수령의 권위와 존엄에 상응하는 형상의 높은 품격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 이와 같은 창작 원칙은 “수령은 혁명의 희망찬 미래를 밝혀 주는 위대한 태양이며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으로 인도하는 구심점이기 때문에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언제나 밝고 숭엄한 감정으로 대하게 된다는 형상원리로 부터 출발한 것”⁴⁸⁾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6.25전쟁 때의 북한군 후퇴시기, 또는 동구 사회주의권 및 구소련의 붕괴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도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무겁고 어둡기 보다는 밝게 묘사하고 있다. 작품의 양상을 밝고 숭엄하게 함으로써 혁명적 낙관주의의 여운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수령형상 작품 창작에서는 무겁고 감상적인 정서적 색채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하는 바, 감상적인 것은 생활에서 기쁨이 없고 내일에 대한 전망과 신념을 상실한 인간과 그의 생활에 고유한 슬픔과 비애, 고독과 절망감의 정서적 색채, 착취계급 사회에 고유한 음울하고 어두운 정서적 색채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⁹⁾

⑥ 등장인물의 성격을 실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인간학적 요구에 맞게 개성화

단적으로 말해서 수령형상 작품 창작에서는 역사에 없는 사실을 꾸며내지 말고 인위적인 인간관계를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수령의 혁명력사는 우리 당의 력사이고 혁명의 력사이며 그 자체가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

48) 리성덕, “조국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적 화폭-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중의 장편소설 <조선의 힘>에 대하여-,” 『조선문학』 (1992.12), p. 43.

49)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 191.

는 생활과 사건으로 엮여지고 있는 것만큼 력사에 없는 사실을 꾸며 낼 필요가 없고 인위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⁵⁰⁾ 둘째,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은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역사문헌적 의의가 크기 때문에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수령의 혁명역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며 혁명역사와 관련된 사실들을 그대로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령의 역사와 불멸의 업적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수령의 위대성과 고매한 품모를 인식하고 수령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문학 작품 창작에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할 데 대한 원칙은 수령형상 작품의 역사문헌적 의의 및 특성을 살리고 강화하기 위한 창작원칙이다.⁵¹⁾ 그러나 이와 같은 창작 원칙은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있음이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의 실제이며, 이로써 수령형상 작품의 역사문헌적 의의 및 특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김정일은 “수령의 혁명역사와 관련한 작품에는 허구를 마음대로 넣지 말아야 한다. 자료고증사업을 잘하여 작품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고 하여 허구를 무시하면 안된다. ... 간단한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서도 그와 관련된 생활에 대한 폭넓은 표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상, 생활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뚜렷한 지향을 가진 환상은 풍부할수록 좋다.”라고 밝힌 바 있다.⁵²⁾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되 허구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그의 주장은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 작품들에서 ‘지나친 허구와 환상들’로 인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으로 나

50) 리명숙,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수형형상작품창작의 중요한 요구,” 『조선문학』 (1994.4), p. 28.

51)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 226.

52) 위의 책, pp. 233~235.

타나고 있다.

⑦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함.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문학에서는 추상적인 인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을 그려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되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수령을 개인으로 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대화하여 형상함으로써 격식화, 기정사실화하는 편향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 이와 같은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령과 주위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그리지 말고 인간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하며, 일군들과 만나 담화할 때 농담도 하고 우스개 소리도 하는 수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형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산주의자의 형상은 개인의 형상이지만 수령의 형상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 인민대중의 이익의 최고 체현자의 형상이므로⁵³⁾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역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으로 형상하고, 탁월한 영도자의 지위에 맞는 위대한 인간적 품모를 형상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높이 구가할 수 있는 심오한 철학적 종자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에서 1990년대를 통해 가장 많이 선택된 종자는 “어떠한 난관이 닥쳐도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이다.

⑧ 수령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물의 형상

53) 박춘택,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 작가의 형상적탐구,” p. 37.

화도 중요

수령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한 다른 인물들의 형상화에 있어서는 첫째, 작품에 나오는 인물을 일정한 사회적 계층의 대표자로 형상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 노동자, 농민 등 등장인물 모두를 자기 계층의 대표자가 되도록 전형화하고 수령과 보통인물과의 적극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함으로써 사회적 집단을 통솔하고 인도해 나가는 최고 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원만히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은 일정한 사회정치적 계층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는 전형적 인물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회적 집단을 통솔하고 인도해 나가는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보여줄 수 있다.”⁵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이 일정한 사회정치적 계층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는 전형적 인물과 관계를 맺을 때어야 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밝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⁵⁾

둘째, 수령의 혁명활동과 깊은 연고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 수령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으로 확증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수령의 권위를 격이 높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들의 격을 낮추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 형상화해야만 한다.

셋째, 인민대중을 등장시키는 데서 기본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이다. 인민들 속에 있는 수령을 참담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 농민과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인민군 장병들을 비롯한 가장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을 기본으로 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⁵⁶⁾

54) 리명숙,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의 중요한 요구,” p. 25.

55) 박춘택,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 작가의 형상적탐구,” p. 41.

넷째, 수령의 측근인물의 형상화가 중요하다.

수령의 측근인물은 모두 뚜렷한 개성을 가진 성격으로 형상되어야 하되, 특히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성격의 핵으로 되어야 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산 모범으로 깊이 있게 전형화 되어야 한다. 북한은 특히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한 참다운 충신의 전형들을 측근인물로 형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신념화된 충실성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승리를 굳게 믿고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가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실천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고결한 공산주의적 품모를 뜻한다. 충실성을 양심화 한다는 것은 수령을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심으로 높이 모시려는 깨끗한 마음을 깊이 간직한다는 것을 뜻한다.

충실성을 도덕화 한다는 것은 수령을 자기 운명의 은인으로,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숭고한 의리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활화 한다는 것은 충실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공고화하고 실천활동에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이와 같은 충실성을 지닌 수령의 측근인물들은 수령형상 작품들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전형화 되어 있다. 수령의 곁을 떠나서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고 수령만 있으면 기어이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실지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충신의 전형, 수령의 명령을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 안고 그것을 목숨 바쳐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 혁명가적 자세와 입장을 견지하는 충신의 전형, 수령과 곁을 같이하는 충신의 전형, 수령이 두고두고 잊지 못해 하는 충신의 전형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특히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해방후편

56)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p. 199~200.

57) 머리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 있는 인간전형을 그리자,” 『조선문학』 (1992. 3), pp. 4~5.

의 장편소설들에서 김책, 최현 등이 수령과 고락을 같이 하는 충신의 전형으로 잘 형상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 작품들에서 수령과 충신의 전형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조직적 관계, 영도자와 영도를 받는 대중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간의 육친의 정,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연결된 혈연적 관계, 사랑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정치적 보호자와 전사의 관계, 아름답고 고상한 공산주의적 인간관계로 형상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계승 완성해 나가는 영도자 김정일에 대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의 견지에서 충신의 성격을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깊이 있게 형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⁵⁸⁾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충신의 전형을 형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수령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해 다른 인물들을 형상 하는 데 있어서는 적들에 대한 형상화도 중요하다. 적들에 대한 형상화에 있어서는 적들을 희화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그리지 않고 역사적으로 실재한 현실적인 인물로 재현하며 그들이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해 패배하게 되는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밝힘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반증해야 한다. 적대관계에 있는 부정인물을 그럴 때에도 그들의 힘을 강하게 보여 주어 그것을 타승하는 수령의 위대성이 진실하고 감명 깊게 안겨오도록 형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작은 총서 <불멸의 향도> 중의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이다. 이 작품은 1993년 당시 북한 핵사찰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대결을 두

58) 명일식,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한 충신의 성격창조,” 『조선문학』 (1996. 4), p. 60.

뇌전, 전략전으로 규정하고 김정일이 당시 미국대통령 클린턴을 압도하는 것으로서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김정일과 기본 갈등대상 인물로 설정된 클린턴은 만만치 않은 적수로서 오만하고 횡포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현실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이성적이고도 침략의지가 강한 '강자'로 형상되어 있다.

⑨ 후계자 김정일을 수령 김일성과의 관계 속에서 형상

이는 한 작품에서 두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분의 위대한 수령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과 활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부각하면서 최상의 사상예술적 경지를 보장”⁵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작으로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영원 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와 장편소설 <푸른하늘>, <영생>, <력사의 대화>, <평양은 선언한다>, 단편소설 <우리의 하늘> 등이 있다.

위의 아홉 가지 외에도 ‘수령형상창조’ 작품 창작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생리가 있다. 먼저 수령의 혁명업적을 그리는 작품 창작에서는 생활반영의 폭을 세계적인 판도로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령의 위대성을 외국 저명인사와의 정치·외교적 관계 속에서, 또는 국제정세와 관련지어 형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령형상창조’ 작품에서는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해야 한다. 수령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 있게 그려내야 수령의 뛰어난 사업풍모와 불멸의 업적

59)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p. 20.

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으므로 수령이 지닌 심원한 철학세계를 품위 있고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령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작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뚜렷이 강조해야 해야 한다.⁶⁰⁾ 작품에 수령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령이 제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수령의 뜻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주인공의 투쟁 모습을 형상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0)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 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81.

Ⅲ.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1964년 대학졸업과 함께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당 사업을 시작한 김정일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여 후계자 지위 구축을 본격화한 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당 선전선동부부장, 당 문화예술부장, 당 선전선동부장 등 요직을 거친 김정일은 197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6차 전원회의에서 비밀리에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 비서,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당내에서 정식으로 김일성 후계자로 옹립되었다.⁶¹⁾

북한문학에서 김정일 '형상화'가 시작된 것도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 구축이 본격화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김정일 '형상창조' 시문학 작품은 1970년에 처음으로 창작되었으며, 1973년에는 김정일을 형상한 송가문학이 20여 편 창작되었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옹립된 해인 1974년에는 김정일을 칭송한 첫 송가집 <2월의 송가>가 창작, 발표되었다.⁶²⁾ 또한 1975년부터는 송가시집 <향도의 해발 우리러>가 매해 출판되었으며, 이후 <향도의 빛발아래>도 출간되었다. 19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대외적으로 공식화되고 난 이후에 발표된 많은 시작품들 가운데 특히 1987년에 백하가 지은 서사시 <불타는 해>는 1947년 조기천이 김일성을 형상한 장편서사시 <백두산>과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소설작품에서의 김정일 '형상화'도 1970년대로부터 시작했으며, 첫

61)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1999), p. 122.

62)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p. 438~439.

장편소설은 1988년에 발간된 현승걸의 <아침해>이다.⁶³⁾ '수령형상창조' 작품 창작이론서인 『수령형상문학』에 따르면, 김정일을 형상한 소설작품들은 '사상이론적업적 형상' 작품,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도에서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현명한 령도 형상' 작품,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현명한 영도와 빛나는 예지 형상' 작품, '군사문제에 대한 영도와 예지 형상' 작품, '공산주의적 덕성 형상' 작품 등으로 나뉜다.

북한에서 이른바 '지도자 형상화' 작품이 대량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인 1991년 말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말부터 2년 여 동안 2백90편의 서정시와 70여 편의 가사를 창작하였으며, 1994년 1월경에 김정일 찬양가요 4백 여 편을 수록한 가요집을 새로이 출간했는가 하면, 김정일이 '공화국 원수'로 추대된 1992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기간에는 무려 1천6백 여 편의 찬양시를 창작, 발표하였다.⁶⁴⁾ 북한 문학에서 김정일을 형상한 주요 작품들은 '4.15문학창작단'이 주축이 되어 창작하는 김정일 '형상창조' 문학작품 시리즈, '총서 <불멸의 향도>'라는 이름으로 발표된다.

이 글의 제2장에서 서술했듯이 '수령형상창조' 작품 창작에 있어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하며, 특히 '걸출한 사상이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과 '정치가·전략가·영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급의 수령은 위대한 정치적 영도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므로 '수령형상창조' 작품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형상 해야 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이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에서도 그대로

63) <아침해>는 은률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완성과정에서의 김정일의 영도력을 형상한 작품이다. 위의 책, p. 452.

64) 통일부, 『김정일시대 북한 시문학의 경향』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서, 1999. 12. 6), pp. 1~2.

구현되어야 하며, 특히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에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형상의 핵으로 해야할 것을 강조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 이와 같은 작품창작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는 다음의 일곱 가지로 개념화하여 논하기로 한다. '충효의 화신,' '위대한 사상·문예이론가,' '사색하는 지도자,' '비범한 예지와 담력의 전략가,' '탁월한 영도의 예술가,' '하늘이 낸 위인,' '사랑의 화신' 등이 그것이다.

1. 충효의 화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위업을 계승한 후계자의 기본 품성이다. 수령의 계승자는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것을 근본사명으로,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으로 삼고 인민대중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당과 혁명의 지도자”라는 것이다.⁶⁵⁾ 이에 따라 북한 문학작품에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김정일의 가장 큰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일을 ‘충성과 효성의 화신’으로 형상하고 있다.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에 있어 “주제사상에서 새로운 측면,” 즉 “수령님께 바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노래한 송가”들이 출현한 것은 1976년부터라고 한다.⁶⁶⁾ 또한 북한은 이와 같은 송가들 가운데 특히 김정일의 친필 송가가사라고 하는 <충성의 노래>가 ‘수령에 대한 인민의 뜨거운 충정’을 사상적 알맹이로 하고 있으며, 이 사상적 알맹이에는 “오늘의 시대가 새겨져 있고 우리 인민

65)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 428.

66) 위의 책, p. 439.

의 생활의 철학이 빛나고 있다.”고 한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
내 조국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인민들은 일편단심 충성을 맹세하네

찬이슬 맞으시며 농장을 찾으시고
눈오는 이른새벽 공장을 찾으시네
크나큰 그 은덕은 만대에 길이 빛나리
인민들은 심장으로 충성을 노래하네

삼천리 내 조국에 해빛은 찬란하고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네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⁶⁷⁾

북한문헌을 통해 보면, 북한에서 말하는 충효사상은 유교사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기초하며, ‘충’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에 대한 충성인바, 김정일은 이런 시각에서 충성의 화신, 충신의 귀감이라고 한다.⁶⁸⁾ 김정일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숭고한 덕성을 지닌 인민의 어버이”로서 김일성을 숭앙하며, 이러한 존경심과 충성심 때문에 수령이 바라고 수령의 심려를 덜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

67) 위의 책, p. 94.

68) 한재만, 「김정일: 인간·사상·령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4), pp. 65~66.

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택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다는 것이다.⁶⁹⁾ 그러나 문학작품 속에서 김정일은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유교적 군신관계 및 부자관계를 지켜나가는 충효의 화신으로 형상되어 있다.

소설에서 김정일은 모든 대내외적 사업 구상 및 실천에 있어 항상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염두에 두며, 대내외 문제와 관련한 김일성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신하된 사명감 및 책임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충효심은 단편소설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형상되어 있다. 작품에서는 김일성의 외국방문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 쌓인 피로를 풀으시라”는 수행원의 말에 김정일이,

진갑이 넘으신 수령님께서 열차로 그 멀고먼 로정을 이어가셔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한평생 휴식을 모르시는 수령님께서 오늘 이처럼 수만리길에 오르시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겠는가 하는 간절한 념원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만족과 기쁨을 드릴 것을 결심하였습니다.⁷⁰⁾

라고 대답한다.

김정일을 이와 같은 충효의 화신으로 형상한 대표적인 작품들 가운데 하나는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푸른하늘>이다. 이 소설은 1984년 서울 수해난 때에 북한이 구호물품을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다. 북한은 이 소설이 분단 39년만에 ‘남조

69) 위의 책, p. 67.

70) 탁숙본, “기쁨,” 『조선문학』 (1993. 10), p. 7.

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게 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작품이며, 김정일이 지닌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김정일의 사색과 심오한 체험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여러 등장인물들의 시점에서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⁷¹⁾ 이 소설에서도 김정일은 오직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수령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할 자신의 사명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남한에 대한 구호물자 전달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또한 북한 소설작품들에서 김정일은 수령에게 사업정형을 보고하거나 수령의 전화 하나를 받는 데 있어서까지도 마치 왕에 대한 신하로서 처신하듯 행동한다. 단편소설 <요영구 풍경화>에서 김정일은 “늘 밤을 지새우며 집무를 보고 새벽에 정세자료를 연구하여 수령님께 보고 드린 다음에야 한두시간 눈을 붙이며,”⁷²⁾ 또 다른 작품에서는 외국에 출장중인 김일성에게 사업정형을 보고하기 위해 굳이 간부 한 사람을 파견한다.⁷³⁾ 수령의 전화를 받을 때에도 김정일은 옷매무새를 고치고 정중히 예를 다하여 수령과 통화한다. 소설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김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늘 경탄하며 절대적으로 그의 뜻을 따른다. 또한 김정일의 충효는 그가 김일성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형성된다. 김정일을 충효의 화신으로 형상한 대표적 장편소설들 가운데 하나인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영생>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무리하게 공식 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그에게 휴식할 것을 적극 청하였으나 김일성이 인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국사에 전념하며

71) 김려숙,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 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p. 65.

72) 안금성, “요영구 풍경화,” 『조선문학』 (2000. 6), p. 7.

73) 탁숙본, “기쁨,” p. 14.

그 청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눈물을 흘린다.⁷⁴⁾ 북한은 이 눈물이야말로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만이 흘릴 수 있는 충효성의 눈물, 참으로 위대한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눈물”⁷⁵⁾이라고 한다. 또한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에서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에게 휴식을 취할 것을 청할 때마다 마음이 격해져서 목이 메인다.⁷⁶⁾ 이와 같은 김정일의 효심은 그가 중학교시절에 썼다는 시 <한 초가 한시간 되어줄 수 없을가>에서도 잘 형상되어 있다.

어제도 오늘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하루는 스물네시간
시간의 흐름에는
변함이 없건만

아버님 주무시는 방
책상우에 놓인 시계
무엇에 쫓기우는가
바늘은 급히도 달아나네

밤은 깊었으나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는 아버님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니
아버님 쉬실 시간
한초한초 줄어만 드는구나

안타까운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시계야 너라도 좀 더디게 가다오

74) 백보흠·송상원, 『영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p. 144.

75) 김해월, “수령형상창조와 감정조직문제,” 『조선문학』 (1999. 2), p. 42.

76) 권정웅, “동지에 대한 추억,” 『조선문학』 (2000. 4), p. 14.

아버님 쉬실 때만이라도
한초가 한시간 되어줄수 없을가⁷⁷⁾

북한이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3(1994)년 새해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내신 가장 위대하고 비범한 력사의 한초한초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충효성으로 이어지고 이어진 위대한 력사의 나날을 가장 진실하고 뜨겁게, 가장 생동하고 품위있게 형상한 작품”⁷⁸⁾이라고 평가하는 <영생>에서 김정일은 언제나 자신을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기 전에 아버지 수령의 전사로 생각하며 수령의 만년장수를 위해 온 심신을 불태운다. 또한 이와 같은 김정일의 유교적 충효는 김일성 사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된다. 소설에서 김정일의 충효는 명절날, 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나 현지지도를 떠날 때면 정해진 일과처럼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을 찾아 무언의 대화를 오래도록 나누는 모습으로도 형상된다.⁷⁹⁾

1996년도의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수령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서 영생하고 계십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인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마다 7월 8일이 오면 스스로 아버지수령님을 가장 고상한 도

77) 금성청년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청소년시절 이야기」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5), pp. 70~71.

78) 김해월, “수령형상창조와 감정조직문제,” p. 40.

79) 김영근, “영원,” 『조선문학』 (1999. 2), p. 12.

덕의리심을 지니고 추모할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7월 8일은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로 맞이하는 것을 영원히 전통화하여야 합니다.”⁸⁰⁾

라고 밝힘으로써, 이른바 ‘수령의 영생위업’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일성 사후의 북한 문학작품에서는 특히 ‘수령의 영생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충효의 화신으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이 형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작 가운데 하나는 서사시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이다. 이 시에 대해 북한은 수령의 영생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김정일의 영도업적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자료들을 시화하여 감명 깊은 화폭으로 펼쳐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⁸¹⁾

김일성 사후 100일 추모행사기간에 보여준 김정일의 충효를 내용으로 한 단편소설 <불멸의 영상>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죽음이 자신의 효성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슬퍼하고, 수령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정녕 자신의 생의 전부임을 토로한다.⁸²⁾ 또한 이 작품에서는 김정일이 인민들에게 수령의 영생의 모습을 안겨주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영결식 초상화 제작과 관련해 강조하는 바, 작품에서 김정일은,

“우리 인민의 갈망을 놓고 볼 때 우리 수령님이 가시였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고 계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80)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김정일선집』14권, pp. 146~148.

81) 김일수,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한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시적형상,” p. 9.

82) 리희남, “불멸의 영상,” 『조선문학』 (1995. 10), pp. 19~24.

제작하지는 겁니다. 영결식 초상화로써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민에게 수령님은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⁸³⁾

라고 하여, 웃고 있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영정으로 쓰게된 이유는 수령을 잃고 슬퍼하는 인민들에 대한 큰 배려에서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북한은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려는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이신” 김정일의 숭고한 모습에서 수령 영생의 철리, 시대의 철리를 확증해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⁸⁴⁾ 또한 단편소설 <영원>에서 김정일은 새로 단장된 ‘금수산기념궁전’에는 기존의 쇠울타리가 조화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쇠울타리는 ‘우리 식’이 아니므로 ‘우리 식 울타리’인 돌울타리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세계 최고의 성지로 잘 꾸림으로써 아버지 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충효심을 대를 이어가며 과시할뿐 아니라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세계만방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수산기념궁전의 옷이라고 할수 있는 이 돌울타리를 티 하나, 흠집하나 없이 최상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⁸⁵⁾

라고 말하여,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한 금수산기념궁전을 세계 최고의 성지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수령에 대한 충효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83) 위의 글, p. 23.

84) 손일훈,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혁명적랑만성의 구현,” 『조선문학』 (1997. 9), p. 44.

85) 김영근, “영원,” p. 19.

위의 내용들 외에도 북한소설에서 김정일은 “수령이 창조한 혁명사상과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를 만대에 빛내여 나가려는 확고한 결의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는 충성의 귀감”으로 형상되며, 이와 같이 김정일을 형상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가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이다. 북한은 이 소설이 “수도건설에서 반드시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는데 제일차적인 주목을 돌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온 세상에 빛내일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건립사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모시고 있다”⁸⁶⁾고 평가한다.

2. 위대한 사상·문예이론가

북한 문헌에 따르면 김정일은 위대한 사상이론가이며 문예이론가이다. 북한은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김정일의 생명소는 그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라고 하며, 이는 천리혜안의 통찰력, 창조적 사색력과 과학적 구상력, 특출한 창작적 두뇌와 저술능력 등으로 표현된다고 한다.⁸⁷⁾ 북한이 주장하는 바, 김정일의 사상이론활동은 1950년대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이 중학교시절부터 청소년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정신 무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5년 출간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청소년시절 이야기>를 통해 보면, 김정일은 고급중학교 시절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도록 이끌어주고,” 학생들에 대한 당정책요강 강화를 역설하며, 학교민청총회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민

86) 박춘택, “주체건축의 새 역사를 펼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 화폭,” 『조선문학』 (1999. 11), p. 19.

87) 한재만, 『김정일: 인간·사상·령도』, p. 126.

청단체들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보고를 하기도 한다.⁸⁸⁾ 북한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김정일의 사상이론활동이 그의 대학재학 시기에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대학졸업 후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10년 동안에는 그의 사상이론활동이 보다 더 폭넓게 전개되었는 바, 이 시기의 활동에서 중요 내용을 이룬 것은 '주체의 문학예술리론'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⁸⁹⁾ 김정일의 문예관련 담화인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그리고 주체문예학의 총서라고 하는 '영화예술론' 등은 이 시기에 발표된 저술들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 중반이후 김정일의 사상이론활동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정식화, 체계화하여 이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며, 이 때에 김정일은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의 저술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정일의 사상·문예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은 '주체사상'의 정식화와 '수령론' 창시, '주체문예이론'의 정식화와 '수령형상창조이론'의 창시, 그리고 모든 장르를 망라한 문예작품 창작의 지도 등에 근거해 강조된다. 그러나 북한 문학작품들 가운데 김정일의 사상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을 형상한 시와 소설들은 많지 않다. 드물게 찾아지는 작품들 가운데 하나가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이다. 이 작품에서는 '수령론'을 창시한 김정일의 사상이론적 업적이 형상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작품 속의 한 사람이 "수령론! 그것은 인류사상사에서 전

88) 위의 책, pp. 148~154.

89) 위의 책, pp. 138~140.

무후무한 위대한 발견이다. 물론 력사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발견하고 그 의의를 명철하게 정식화하신 분은 다름아닌 우리의 영명하신 김정일동지이시다!”⁹⁰⁾라고 말하며, 맑스에게는 ‘자본론’이 있고, 레닌에게는 ‘제국주의론’이 있으며, 김일성에게는 ‘주체사상론’이 있고, 김정일에게는 ‘수령론’이 있다고 하여⁹¹⁾ 김정일을 맑스, 레닌과 동등한 지위의 사상이론가로 형상하고 있다.

김정일의 문예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은 많은 편이다. 소설작품들에서는 공연장을 찾은 김정일이 예술인들 앞에서 음악, 무용 등 공연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해 주며 연주자와 연기자들의 사소한 실수까지 지적해내 고쳐준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를 형상한 작품들로는 단편소설 <청춘>⁹²⁾과 <광장의 교향곡>이 있다. <광장의 교향곡>에서 김정일은 “한생을 음악과 함께 살아오는 전문가들이 훑고 또 훑어보면서 발견해낼 수 없었던 것,” 즉 “극장의 잔향관계로 해서 음향의 부조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해내기도 한다.⁹³⁾ 또한 <광장의 교향곡>에서는 이와 같은 김정일을 ‘위대한 음악가’로 찬양한다.

“음악은 근로하는 인민이 처음으로 창조했고 그 인민의 향유물이였다. 력사의 오랜 수난기를 거쳐오면서 인민은 음악마저 빼앗겼다. …위대한 혁명가정이 싸움에 나서며 음악과 인연을 맺은 그때부터 인민은 음악을 되찾았다. 인민은 음악의 영원한 주인이 되었다. 음악은 자주적인 삶을 위한 인간들의 투쟁의 무기로 되었다. 바로 그

90) 김선일, “우리 당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심오한 형상,” 『조선문학』 (2000. 6), p. 27에서 재인용.

91) 위의 글, p. 26.

92) 리호인, “청춘,” 『조선문학』 (1995. 2), pp. 6~15.

93) 최성진, “광장의 교향곡,” 『조선문학』 (1998. 2), p. 11.

러한 음악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버리어 혁명하는 인민의 손에 쥐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위대한 음악가이시다! 우리의 모든 음악가들의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하는 시대의 음악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는 그렇듯 전무후무한 위대한 음악가이시다.”⁹⁴⁾

문예이론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대표적 장편소설은 <예지>⁹⁵⁾이다. 이 작품은 김정일이 <꽃파는 처녀> 등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을 현지지도하면서 영화창조사업을 벌이는 활동상을 형상함으로써 김정일의 영화예술에 대한 업적과 문예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 창작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김정일을 문학예술의 영재로서 찬양하기도 한다. 김정일은 이미 청소년기에 동시, 가사, 서정시 등의 주제적 문학예술의 본보기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문학예술의 영재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청소년기에 창작했다는 주요 작품들로는 동시 <우리의 수령>(1953)과 <우리 교실>(1954), 가사 <나의 어머니>(1960)와 <조선아 너를 빛내리>(1960), 서정시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1962) 등이 있으며, 그의 나이 12살에 창작했다는 연극대본 <패전장군의 말로>⁹⁶⁾도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11살의 어린 나이에 지었다는 동시 <우리의 수령>이 김일성수령에 대한 아동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표현한 혁명적 수령관에 바탕한 작품이며, '수령형상창조'의 기틀을 보인 작품이라고

94) 위의 글, p. 12.

95) 리종렬, 『예지』 (평양: 문예출판사, 1990).

96) 금성청년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청소년시절 이야기』, pp. 55~59.

평가한다.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왜놈도 미국놈도 다 쳐부신
아버지장군님은 강철의 령장
백두의 슬기로 조선을 떨치는
아버지장군님은 우리의 수령

세상에 이름높은 우리 수령은
나 하나의 아버지가 아니랍니다
조국을 되찾아 모두 안아주고
조국을 지켜 누구나 품어주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⁹⁷⁾

또한 북한은 1954년에 김정일이 창작 발표했다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우리 교실>의 기본지향이자 근본핵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효일심’이며, 이 작품은 김정일이 지닌 혁명적수령관의 빛나는 시적, 예술적 구현이고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최상의 높이에 이른 혁명적시 가문학의 고전적 본보기라고 평가한다.⁹⁸⁾

아름다운 교실,
언제나 재미나는 교실
앞에는 원수님 초상화
환하게 모셔져있지요

오늘 아침도 기쁜 마음으로

97) 김정일, “동시: 우리의 수령,”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pp. 383~384에서 재인용.

98) 장정춘,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 비범한 문학적천품의 빛나는 구현,” 『조선문학』 (1994. 6), pp. 27~28.

우리 교실에 들어서니
언제든지 반가운 듯이
우리 보고 공부 잘하라고

3. 사색하는 지도자

북한의 문예이론서인 『수령형상문학』에 따르면 “위대한 인간의 위대성은 사상과 함께 인간의 사상정신적 면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감정정서의 심오성에서도 나타난다. 위대한 인간일수록 감정정서가 풍부하며 내면세계가 깊다. 그러므로 감정정서와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그리는 것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의 품모와 인간세계를 깊이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⁹⁹⁾라고 한다. 이는 곧 문학작품에서 사색하는 수령의 모습을 형상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는 창조적 사색력으로도 표현된다고 한다. 김정일의 창조적 사색력은 그의 사상이론활동의 심오성, 독창성을 창출시키는 중요한 사상적 예지이며, 그의 사색 탐구력은 비상한 투시력, 침투력을 가지고 있는 바, 일단 김정일의 사색이 미치는 곳이면, 자연, 사회, 인간, 객관세계와 정신세계 할 것 없이 무릇 인간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그의 정체와 비결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¹⁰⁰⁾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반영하듯 김정일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에서는 김정일을 매사에 “끊임없이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침착한 성품의 지도자로 형상하고 있다. 소설작품들에서 김정일은 말보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

99)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 221.

100)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 p. 128.

이라 해도 깊은 사색을 하고 난 후에 행동하며, 그가 지니고 있는 탁월한 정치가·전략가로서의 비범한 예지는 심오한 사색의 산물로서 나타난다.

단편소설 <새벽>¹⁰¹⁾에서 김정일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기까지 조금도 동요하거나 긴장함이 없이 깊은 사색을 거듭한 후에 담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형상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사색하는 지도자 김정일에 대해 북한은 “범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광폭의 사색을 펼치시는 위대한 분이시며 그이의 사색과 담력은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¹⁰²⁾ <력사의 대하>에서도 김정일은 심오한 사색을 통해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 전략을 구상한다.

북한 소설에서는 김정일을 사색하는 지도자로서 형상 하는 데 있어 특히 서정성을 크게 강조한다. 여러 편의 작품에서 김정일은 사색 중에, 또는 사색 끝 무렵에 음악을 감상하며, 사색중에 풀벌레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또한 김정일의 사색장면은 매우 서정적으로 묘사되는 바, 김정일은 집무실 창문가에 서서, 방안을 조용히 거닐면서, 대동강변을 한없이 오르내리면서, 개울가 돌 위에 앉아서, 아니면 “긴 소파에 앉아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창문너머 멀리 바라보며,”¹⁰³⁾ 소리 없이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며, 담배를 길게 태우며, 승용차 뒷좌석의 등받이에 몸을 기대 채 묵묵히 차창 너머를 바라보며 오랜 동안 사색에 잠긴다. 그런가하면 여러 편의 작품에서 김정일은 현지지도의 노정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 혼자 걸으며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의 핵 대결전을 내용으로 한

101) 최성진, “새벽,” pp. 7~17.

102) 김해월, “위대한 령도자의 형상창조와 작가의 새로운 창작적 지향,” 『조선문학』 (1995. 5), p. 8.

103) 리호인, “청춘,” p. 7.

<력사의 대하>에서 김정일은 긴 사색중에 '백두산 밀영집'과 어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던 '반달'노래를 생각하며 잊지 못할 어머니의 미소를 눈앞에 그리다가 불현듯 “조선이 없는 지구가 있을수 있겠는가”라며 미국과의 결전의 의지를 다진다.¹⁰⁴⁾ 또한 총서 <불멸의 향도> 중 리 종렬의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에서는 김정일을 대형지구의, 또는 대형 세계지도를 바라보며 세계평화와 사회주의 조국의 안위를 위해 오랜 시간 사색을 거듭하는 지도자로 형상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김정일을 사회주의와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인식케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백남룡의 장편소설 <동해천리>는 김정일을 사색하는 지도자로서 형상한 대표적 작품이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 중엽으로 북한의 경제사업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던 시기이다. 작품에서 김정일은 동해천리를 현지도 하던중에 비료생산문제,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 건설문제, 연, 아연생산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그 난문제와 관련된 모든 고리들을 두고 많은 것을 생각”한다.

사색하는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은 형상한 시작품으로는 가사 <그이의 한생>이 있다. 이 작품에서 김정일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밤을 지새며 사색하는 지도자로 형상되어 있다.

아침을 맞으시며 펼치는 사색
언제나 인민을 위해 시작되여라
한밤을 지새시며 이어진 사색
언제나 조국 위해 깊어지여라¹⁰⁵⁾

104) 정기중, 「력사의 대하」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pp. 134~136.

105) 김순림, “위대한 인간의 풍모에 대한 전인민적인 매혹,” p. 58에서 재인용.

4. 비범한 예지와 담력의 전략가

북한 문학작품에서 김정일은 비범한 예지와 담력을 지닌 전략가·정치가로 형상되며, 이를 통해 그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임을 강조한다. <동해천리>에서는 김정일의 비범한 예지와 담력을 다음과 같이 형상하고 있다.

“사색깊은 그의 눈에 아가와 같은 예지의 섬광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 . . 개막장사무실안에는 김정일동지의 확신에 찬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올해말까지 국가계획외에 6만톤의 광석을 더 캐자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대담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 . . 검덕의 지하에 은물의 금산포 앞바다에 놓은 것보다 더 크게 벨트콘베어를 놓아야 합니다.> 막장사무실안에 경탄과 감격의 숨결이 회오리쳤다.”¹⁰⁶⁾

위에서와 같이 소설작품에서 김정일의 비범한 예지와 담력은 특히 눈빛을 강조하여 형상한다. 예를 들면 “김정일장군의 눈에서 번개의 섬광과 같은 강렬한 빛이 번쩍이였다.”¹⁰⁷⁾라든지, “김정일동지께서는 미국땅덩어리가 눈에 마쳐오자 지구의를 멈추어 세우시였다. 그러시고는 근엄한 눈빛으로 굽어 보시였다. 철추를 내리는 듯 그의 안광에 섬광이 번쩍이였다.”¹⁰⁸⁾라고 형상한다.

또한 비범한 예지와 담력을 지닌 탁월한 영도력의 소유자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은 수령·당·대중의 3위일체의 관계에서 형상 되는 바, 소설에서는 언제나 인민 속에서 활동하는 김정일의 풍모를 그린다. 소

106) 백남룡, 『동해천리』 (평양: 평양출판사, 1996), pp. 206~207.

107) 백보흠·송상원, 『영생』, p. 57.

108) 박일명, “전환,” 『조선문학』 (1999. 6), p. 12.

설에서 김정일은 인민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그들의 힘을 느끼고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굳히는 참다운 지도자, 인민의 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을 결심하고 비범한 전략들을 구상하며 무비의 담력으로 적에게 섬멸적 타격을 안기는 위대한 장군으로 형상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의 탁월한 정치적·전략적 결단은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 인민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믿음에 따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수령형상창조’ 문학작품에서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김일성의 위대성 형상은 주로 ‘항일무장투쟁’과 6.25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며, 김정일의 위대성 형상은 주로 1993년 봄의 이른바 ‘조미핵대결전’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조미핵대결전’을 소재로 하여 비범한 예지와 담력을 지닌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김정일을 형상한 대표적인 작품은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와 단편소설 <새벽>이다. 북한의 ‘핵의혹’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갈등 및 북한의 NPT탈퇴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두 작품에서는 김정일을 비범한 예지와 담력, 배짱과 투지를 지닌 힘의 화신, 승리의 화신으로 형상하여 전략가로서의 그의 위대성을 강조한다. <력사의 대하>에서 김정일은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우리 조국땅을 불모지로 만들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김일성의 물음에 “수령님!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이 땅에 단 한 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구는 날엔 미국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¹⁰⁹⁾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무비의 담력을 과시한다. 또한 <새벽>에서는 한 당 일군이 김정일의 천재적 지략과 무비의 담력에 크게 감복하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 아니 인류의 평화가 경각에 다달은 이 시각 천재적

109) 정기중, 『력사의 대하』, p. 320.

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조국의 자주권과 세계평화를 지켜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소리 높여 외친다.¹¹⁰⁾ 북한은 특히 <력사의 대하>를 “핵대결전을 세계적 판도에서 폭넓게 보여주며 미제를 굴복시키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한 작품으로 평가하며,¹¹¹⁾ “핵대결전을 통하여 령장으로서의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령도자의 위대성 형상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작품으로 평가한다.¹¹²⁾ <력사의 대하>에서 비범한 예지와 담력을 지닌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은 김정일이 ‘팁스피리트93’ 합동군사연습 재개에 대처하여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것, 미국에 의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과 제재에 대해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는 것, 미국주도의 ‘포커스작전’에 대해 군단규모의 대연합부대작전연습인 <섬광>작전을 단행하는 것, 미국대통령으로부터 항복서한을 접수하는 것 등을 통해 형상된다.

한편 김정일 ‘형상창조’ 문학작품에서는 비범한 예지와 담력을 지닌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김정일을 국운이 걸린 위기의 순간에도 여유로움을 보이는 지도자로 형상한다. 단편소설 <새벽>에서 당 간부는 김정일의 탁상일력에 적힌 3월25일을 보고 그 날이 ‘조미핵대결전’에 있어 “적들의 최후통첩일, 즉 평화나 핵전쟁이냐 하는 역사적 사변의 날”임을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끼나, 김정일은 말하기를 “탄광 고문지배인의 생일 일흔둘을 잊지 않고 축하해 주려고 탁상일력에 그의 생일 3월25일을 기록해 놓은

110) 최성진, “새벽,” p. 17.

111) 김해월, “수령형상창조와 감정조직문제,” pp. 40~45.

112) 장형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형상에서 거둔 혁신적 성과,” p. 46.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새벽>에서 김정일은 “혁명의 준엄한 난국”에 처해 있으면서도 함께 일하는 당 간부의 손자애기로 웃음꽃을 피우는가 하면 노년기에 들어선 당 간부의 건강을 염려한다. <력사의 대화>에서는 김정일이 미국과의 ‘핵대결전’이 승리로 끝날 것임을 확신하고 유유히 ‘송도원 국제야영소’를 찾는 여유를 보인다. 또한 김정일은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에 외교부 제1부부장을 불러 핵 관련 문제를 논의한 후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음악을 감상하는가 하면 그에게 곡을 자세히 해설해 주기도 한다.¹¹³⁾

대부분의 소설작품들에서 김정일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위급한 상황일수록 보다 더 낮은 음성으로 침착하게 말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지도자로 형상되어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여유 있는 모습을 『푸른하늘』에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신을 집중시켜야 할 긴장한 문제를 토의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명랑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시었다. 때문에 방안은 항상 화기에 넘쳐있었다.”¹¹⁴⁾라고 형상하고 있다.

5. 탁월한 영도의 예술가

북한은 김정일을 일컬어 ‘령도의 예술가’라고 한다. “령도란 민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구실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인데 민중을 조선로동당의 로선, 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그분의 솜씨가 재능있는 예술가의 솜씨처럼 절묘하기 때문에”¹¹⁵⁾ 김정일을 영도의 예술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바, 수령의 영도에서 기본은 혁명의 전략과 노선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당과 대

113) 정기중, 『력사의 대화』, pp. 132~133.

114) 권정웅, 『푸른하늘』, p. 145.

115)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 p. 268.

중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며,¹¹⁶⁾ 이와 같은 영도의 기본을 갖춘 지도자 김정일은 ‘주체의 령도자,’ ‘단합의 령도자,’ ‘변혁의 령도자,’ ‘비약의 령도자’라고 한다.¹¹⁷⁾

탁월한 영도력을 지닌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대표적 작품으로는 총서 <불멸의 향도> 중 리종렬의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이다. 이 소설은 1991년의 ‘평양선언’¹¹⁸⁾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며, 이 소설에 대해 복한은 “동구라과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되어 자본주의 복귀의 길에 들어선 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탁월한 령도력과 비범한 예지로 사회주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확증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모습을 무게있게 형상”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¹⁹⁾

소설에서 김정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인민의 참다운 아버지이며, 세계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을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한 길을 따라 드팀없이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고 세계혁명의 찬란한 태양”으로 형상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인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어로 힘차게 벌려 나갈 노선적 문제를 명철하게 밝혀주는 사상과 영도의 천재”로 형상되었다. 소설에서는 특히 김정일이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 속에서도 ‘천리혜안의 예지’로 혁명과 건설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며 필승의 지략을 펼쳐나가는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여 ‘평양선언’을 이끌어 낸

116) 리창유, “자주위업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불멸의 형상,” p. 45.

117)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 pp. 268~340 참조.

118) ‘평양선언’은 1991년, 김일성 80세 생일을 계기로 세계 70개 정당 대표들이 평양에서 서명한 선언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되었다.

119) 김해월, “수령형상창조와 감정조직문제,” p. 40.

다. 김정일은 동구 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의 붕괴는 수정주의노선을 고취하던 변질된 기회주의자들의 배신행위와 총 파산이라고 규정하고, 참된 사회주의는 살아 있으며 반드시 그것은 세계적 범위에서 재건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¹²⁰⁾ 이에 대해 북한은 “보통 정치인으로서 는 예측할 수도, 내다 볼 수도 없는 착잡한 정세발전의 흐름에 대처 하여 혁명의 미래를 손금보듯 내다보는 위인의 비범한 예지이며 언제나 과녁을 명중하는 백발백중의 예견성”¹²¹⁾이라고 찬탄하며 이른바 ‘하늘이 낸 위인’으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박태수의 장편소설 <서해전역>도 탁월한 영도의 예술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1980년대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수령의 의도와 구상을 관철하고 수령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여기는 김정일이 갑문건설에는 적어도 반세기가 걸릴 것이라고 하는 프랑스 수리공학자의 말을 뒤집고 불과 5년만에 ‘남포갑문’ 건설을 완공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 소설이 위대한 정치가, 영도자로서의 김정일의 형상을 통하여 ‘선군정치’의 위력을 예술적으로 입증했다고 한다. 갑문건설은 인민군대에 의해 이루어진 바, 이는 인민군대에 대한 김정일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며, 소설은 김정일의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의 세계를 깊이 있게 형상 하여 선군영도의 위력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¹²²⁾

120) 리종렬, 「평양은 선언한다」(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pp. 431~437.

121) 리창유, “자주위업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불멸의 형상,” p. 46.

122) 장희숙, “위대한 정치가 낳은 20세기의 기적에 대한 서사시적화폭,” 『조선문학』(2001. 6), pp. 18~19.

6. 하늘이 낸 위인

이른바 '백두광명성전설'에 따르면, 북한에는 하늘에서 내린 위인이 세 사람 있다. 이들은 모두 하늘에서 자강도의 한 산골마을에 있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집'에 내려왔다고 하며, 김형직,¹²³⁾ 김정숙,¹²⁴⁾ 김정일¹²⁵⁾이 바로 그 '하늘이 낸 위인들'이라고 한다. 김정일은 하늘이 낸 세 번째 위인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탄생한 첫날부터 '백두광명성,'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떠받들리고 그 탄생이 전민족적 경사로 축복된 하늘이 낸 위인이라고 한다. 김정일의 탄생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과 민족의 장래 운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며 민족적 대 경사라는 것이다. 북한의 시작품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김정일의 탄생의 의의와 하늘이 낸 위인의 위대성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다.

김정일동지 - 그이는
하늘이 내신 분
하늘의 산
백두의 대문을 여시고
2월에 우리에게 오신분¹²⁶⁾

123) 백두광명성전설, “첫번째 위인을 맞다,” 『조선문학』 (1992. 9), pp. 28~30.

124) 백두광명성전설, “두번째 위인을 맞다,” 『조선문학』 (1992. 10), pp. 39~40.

125) 백두광명성전설, “세번째 위인을 맞다,” 『조선문학』 (1992. 11), pp. 21~22; 또 다른 '백두광명성전설'에서는 백두산이 3대위인이 내린 성산이라고 하며, 3대위인이란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이라고 한다. 백두광명성전설, “3대위인이 내린 성산,” 『조선문학』 (1994. 6), pp. 21~23.

126) 오필천, “영원히 빛나시라,” 『조선문학』 (1995. 4), p. 20.

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장군님은 하늘이 낸 또 한분의 령도자
수령님의 그 뜻으로
수령님의 그 숨결로
인민을 위하시고
인민을 보살피시나니¹²⁷⁾

계절이 알고 산천이 알아,
하늘이 알고 력사가 떠받드는 분”¹²⁸⁾

또한 김정일 탄생 50돌에 즈음하여 창작된 작품인 서정서사시 <해
돌이>¹²⁹⁾는 김정일의 작명 과정과 의의를 밝히는 데 형상의 초점을
두고 그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있다.

나에게도 본래
부친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지요
그러나 김혁이랑 차광수, 그 동무들이
내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도
그 이름으로 불리우니
내가 김형직의 아들만이 아니었다는
엄숙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7) 남태범, “그분을 받드는 길에 영광넘친다,” 『조선문학』 (1995. 2), p. 26.

128) 신문경, “송사: 2월의 봄빛,” 『조선문학』 (1999. 2), p. 4.

129) ‘해돌이’는 김정일의 탄생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 시가 서정시 <어머니>와 서사시 <끊나지 않은 담화>와 함께 북한주민들 사이에 널리 애독되어 김정일의 위대성 교양에 힘있게 이바지 하는 시대의 명작이라고 한다. 김철, “서정서사시: 해돌이,” 『조선문학』 (1992. 3).

그러니 지금 백두산에서
우리와 피줄을 이은 그 생명도
혁명의 아들, 조국의 아들
민족의 아들이며 인민의 아들이지
김성주의 아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략>

태양의 아들이시여
태양의 대를 곧바로 이으시라!
바를 정(正)!
날 일(日)!
정일!
김정일!¹³⁰⁾

북한은 위의 서정서사시 <해돋이>가 김정일의 탄생과 그 민족사적 의의를 역사적으로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노래한 것이며, <해돋이>의 철학적 심오성은 영도자의 탄생을 주체혁명위업 계승의 견지에서 뜻깊게 노래한 데에 있다고 한다.¹³¹⁾

‘하늘이 낸 위인’으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은 특히 『조선문학』에서 장기 연재되고 있는 ‘백두광명성전설’에서 ‘전설’의 형태로도 형상되고 있다. 또한 ‘백두광명성전설’에서 형상 되는 김정일의 위대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 양상을 나타낸다.

첫째, 성지에 내린 하늘이 낸 위인 김정일의 위대성 형상이다.

1942년 2월16일, 하늘에서 열 여섯의 신선이 백두산 밀영지구에

130) 위의 글, p. 13.

131) 장형준, “영도자의 탄생을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노래한 감명깊은 명작,” 『조선문학』 (1999. 3), p. 11.

내려와 흰 눈위에 무릎을 꿇고 ‘귀틀집’을 향해 큰 절을 하고 일어나 “이 나라에 대통운이 튼 것을 축하하나다.”라고 말한 후 일제히 나팔을 부니, 하늘에는 전에 없던 커다란 별이 하나 솟아 밝은 빛을 뿌리고 ‘귀틀집’도 금빛광채를 뿌렸다고 한다.¹³²⁾

하늘나라 왕이 이르기를 “오늘의 인간세상에 광명성이 있어 빛이 있고 광명성의 뜻대로 세상만물이 움직인다. …오늘의 인간세상을 밝히는 광명성이기에 우리가 그 성지를 천상천하 제일강산에 정한 것”이라고 한다.¹³³⁾

둘째, 신통력을 지닌 하늘이 낸 위인 김정일의 위대성 형상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마가 장수를 만나지 못해 바위로 굳었는데,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난 어린 장수 김정일이 그 용마바위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금빛서리가 어리면서 바위가 움직이고 말울음 소리와 함께 용마가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하며, 용마바위는 지금 ‘염분진혁명사적지’에 있다고 한다.¹³⁴⁾

묘향산 보현사 대웅전 앞에 있는 8각13층탑의 풍경들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달랑달랑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를 연 3일이 지난 후, 김정일이 보현사를 방문하자, 이를 두고 사람들은 김정일이 온다는 것을 알려려고 풍경이 울린 것이라고 했으며, 이 석탑에는 김정일이 어린 시절에 김일성과 함께 보현사에 왔을 때 8각13층탑에 달린 풍경의 수를 세지도 않고 104개라고 알아맞힌 김정일의 예지가 깃들여 있다고 한다.¹³⁵⁾

132) 백두광명성전설, “하늘에서 내려온 열여섯 신선,” 『조선문학』 (1994. 11~12), pp. 15~16.

133) 백두광명성전설, “정일봉에 별들이 새겨진 이야기,” 『조선문학』 (1995. 4), p. 40.

134) 백두광명성전설, “염분진전설,” 『조선문학』 (1995. 2), pp. 19~20.

135) 백두광명성전설, “시내가에서 찾은 유물,” 『조선문학』 (1995. 12), p.

셋째, 천지조화와 풍운조화를 지닌 하늘이 낸 위인 김정일의 위대성 형상이다.

군사분계선의 인민군진지에 시찰 나온 김정일이 쌍안경을 들고 국군진지를 살피는 순간, 쌍안경 렌즈의 빛발이 번개섬광이 되었던 바, 그 빛을 본 국군들은 모두 눈이 멀었으며, 달려오던 군인들은 모두 넘어져 머리, 다리를 상했는가 하면, 그 시각에 전화를 걸던 대대장은 귀머거리가 되고 명령을 내리려던 대대참모장은 병어리가 되었다고 한다¹³⁶⁾

김정일은 수십리 밖에서 쌍안경으로 산세를 한 번 훑어보고 기념비적 건축물의 자리, 또는 공장부지를 선정하는 등 천지조화술로 명당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한다.¹³⁷⁾

문경새재의 구새재, 큰새재, 작은새재와 함께 이 령의 네 고개중의 하나인 '하늘재' 아래 수안보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던 곳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이 어려 있는 뜻깊은 고장”인데, 1999년 4월 어느 날, 하늘재 쪽으로 “청청 하늘에” 쌍무지개가 서고, 하늘재 숲속에 수백년 묵은 고목의 가지마다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풍기는 조화가 일어나더니 바로 그 해 말 김정일이 판문점을 시찰했다고 한다.¹³⁸⁾

위의 내용들 외에도 '백두광명성전설'에는 하늘이 낸 위인 김정일의 예견성을 주제로 한 글이 자주 실리며, “위대한 인간”이라는 제하의 글에서도 김정일의 예견성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한 예로 김

17.

136) 백두광명성전설, “신기한 번개와 <승리경>,” 『조선문학』 (2000. 5), pp. 6~7.

137) 백두광명성전설, “명당자리,” 『조선문학』 (1993. 9), pp. 22~24.

138) 백두광명성전설, “하늘재,” 『조선문학』 (2000. 1), pp. 10~11.

정일은 1979년 3월 초순에 이미 천리혜안의 통찰력으로 “남조선사회의 심각한 모순과 정세의 징조를 보아 그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바야흐로 박정희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할 것이 내다보인다.”¹³⁹⁾라고 하여 박정희 시해사건을 예견한 바 있다고 한다.

7. 사랑의 화신

북한은 “조국과 민족, 인민과 병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김정일의 중요한 성격적 특질이며 김정일의 위대성의 기초”¹⁴⁰⁾라고 한다. 따라서 소설에서 김정일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형상된다. 이와 같이 김정일을 이른바 ‘사랑의 화신’으로 형상한 대표적 작품은 실화소설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시대의 념원>이다. 이 소설은 ‘김정일화’에 깃든 이야기를 ‘실화적’으로 묘사하여, 이를 통해 김정일의 위대성을 구현한 작품이다. 소설의 내용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본인 가모 모도데루가 다른 꽃들과는 달리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원한 이름으로 불리울 꽃을 육종하고 싶어 했는 바, 김정일화를 만들어내 김정일에게 헌화함으로써 염원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소설에서 ‘김정일화’는 “악한자들을 용정내고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들을 안아키우는 용맹하고 너그러운 천품을 상징하는 꽃,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수호신의 꽃”으로 형상되어 있다. 이는 곧 김정일을 사랑의 수호신, 행복의 수호신, 인류의 수호신으로 형상한 것이며, 여기에서 ‘수호신’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과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고 보호해주는 신격화된 위인의 넓은 품을 상징

139) “위대한 인간: 예언,” 『조선문학』 (1995. 3), p. 19.

140) 장형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형상에서 거둔 혁신적 성과,” p. 45.

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바라는 “진정한 인간의 수호신은 하늘이 아니라 주체의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온 세상에 참다운 인간의 락원을 꽃피워가고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라고 한다.¹⁴¹⁾

‘수령형상창조’ 작품 창작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는 수령의 인간적 풍모를 격식화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형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작품에서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김정일의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첫째, 소설에서는 ‘사랑의 화신’인 김정일의 애민, 애병사상과 따사로운 손길에 의해 모두가 사상적으로 발전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운명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소설에서 김정일은 과오를 범한 일군에 대해 당적 추궁을 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과오를 씻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이로써 과오를 범한 일군은 김정일의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마침내 당의 뜻을 관철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다짐한다. 소설에서 김정일은 당 일군이 범한 과오를 사상적인 과오보다도 일시적인 착오라고 보고 철직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지도와 혁명정신 강화 조치를 취하며, 또한 오히려 그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겨 신임을 보임으로써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애민사상을 형상한 대표적 작품들 가운데 하나는 그의 혁명활동역사를 형상한 첫 장편소설이라는 <아침해>이다. 이 소설에서 김정일은 은률광산에 대한 지도사업을 바로 하지 못하여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국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과오를 범한 당 부총국장에 대해 믿음과 사랑으로 그가 당의 정책을 관철할 수 있도록

141) 명일식,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따르려는 시대의 념원에 대한 진실한 형상,” 『조선문학』 (1994. 3), p. 22에서 재인용.

록 한다.

김정일의 애병사상은 그의 군부대 현지시찰을 내용으로 한 소설들에서 잘 형상되어 있다. 소설에서 김정일과 병사들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 믿음과 충성 및 사랑과 효성의 관계로 형상되어 있다. 소설에서 김정일은 최고사령관이기 전에 '친어버이'가 되어 병사들을 보살피 주며, 병사들은 김정일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른다. 또한 병사들은 김정일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할 것임을 맹세한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애병사상은 단편소설 <7월의 하늘>에서 “과업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선비같이 나약해 늘 주눅들어 있던” 한 중대장을 포병여단장으로까지 키워주는 것으로 형상되어 있다.¹⁴²⁾ 또한 단편소설 <광장의 교향곡>에서는 김정일의 현지시찰 노정을 따라 취재를 나갔다는 한 작가의 말을 통해 김정일의 애병사상을 형상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취재작가는 자신의 친구에게 김정일이 최전연을 현지시찰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장군님께서서는 한공기의 강낭죽으로 때식을 치르시며 그 멀고도 험한 길을 가고 계시네. 그 뿐인줄 아나, 장군님께서서는 동삼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종일 야외에서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보아주시느라 발을 열구시였다면 자넨 그걸 선뜻 믿겠나? 하지만 그건 사실이네! 장군님께서 내색을 하지 않으시여 그곳 부대지휘관들조차도 모르고있었지.”¹⁴³⁾라고 한다.

둘째, 소설에서는 김정일을 권위적이지 않은 소탈한 품성으로 형상 하여 그의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을 찬양한다. 예를 들어 <평양은 선언한다>에서 김정일은 현지지도중에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만나 허물없이 그들과 사업을 의논하고 때로는 백두의 눈보라를 맞은 후 허

142) 조수희, “7월의 하늘,” 『조선문학』 (1994. 7), pp. 8~15.

143) 최성진, “광장의 교향곡,” p. 5.

물없이 들쭉술도 나눈다. <동해천리>에서는 운전수가 피곤해질 것을 걱정해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조롱박에 샘물을 가득 떠서 운전수에게 주는 등 소탈함을 보인다. 또한 김정일은 협동농장 현지지도중에 간부들이 잘 차린 점심상을 마다하고 개울둑 풀밭에서 협동농장 일꾼들과 '쨈기밥'을 나누어 먹기도 한다. <7월의 하늘>에서는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헛돌자 사병들과 함께 흙탕물을 묻혀가며 바퀴를 뺏아내고는 웅덩이에 고인 물에 손을 씻는 모습도 형상되어 있다.¹⁴⁴⁾

셋째, 북한의 문학작품들에서는 김정일을 인민에 대해 '친어버이'로서의 사랑과 배려를 보이는 지도자로 형상 하여 그의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찬양한다. 북한은 김정일에 대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만이 아닌 온 나라 가정의 친어버이이시기에 인간중의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누리셔야 할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마저 우리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였다.”고 한다.¹⁴⁵⁾ 이와 같은 김정일의 친어버이와 같은 사랑과 배려는 단편소설 <새벽>에서 탄광 고문지배인의 생일 일흔돌을 잊지 않고 축하해 주려고 생일을 탁상 일력에 기록 해놓는 것으로 형상 되었다. 단편소설 <청춘>에서는 김정일이 무용공연중 실수로 무대에서 떨어진 한 무용수를 격려해주자 격려를 받은 무용수가 김정일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우는 장면을 그림으로써 김정일의 너그럽고 따뜻한 품성을 형상 하였다.¹⁴⁶⁾ 북한의 시작품들도 인민에 대한 친어버이와 같은 김정일의 사랑과 배려를 다음과 같이 형상한다.

144) 조수희, “7월의 하늘,” p. 14.

145) 신경애, “그리움의 서정속에 비긴 한해에 대한 감명깊은 시형상,” 『조선문학』 (1999. 3), p. 20.

146) 리호인, “청춘,” p. 10.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의 지도자, 우리 아버지
 정치를 말하기에 앞서
 사랑이 가슴속에 넘쳐있기에
 당신은 인간중의 위대한 인간으로
 인민의 가슴속에 자리잡고계십니다

인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두고
 그리도 눈물이 많으신 분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정이 고마워
 우리도 눈물이 많은 인민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심장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순결하고 투명한 마음과 정이 합쳐져
 당신과 우리는 영원한 하나가 되었습니다¹⁴⁷⁾

출장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신 듯
 나들이 갔던 어머니가 집에 오신 듯
 평양사람들 기쁨 속에 주고받네
 《장군님께서 오시였다》¹⁴⁸⁾

시와 소설에서 형상 되는 김정일의 친아버지로서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이른바 김정일의 '현지도 노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작품 속에서 김정일은 자식을 보살피는 아버지 심정으로 새벽녘, 또는 한밤중에 평양시가, 시골농가, 탄광 등지를 차로 달리며 인민들의 생활을 살핀다. 그의 현지도는 지역, 기후, 계절, 시간에 관계없이 진행되며, 때로는 며칠씩 밤을 지새우면서 강행된다.

147) 오영재,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 『조선문학』 (1994. 8), p. 16.

148) 박련희, “평양에 오시였다,” 『조선문학』 (2000. 6), p. 6.

자신의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풍찬로숙하신 우리 어버이
인민을 찾고 찾으시며
온 한해 인민의 집에 계신
아, 우리의 김정일동지!

<중략>

얼마나 보고싶으시였으면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희천사람들이 자꾸만 꿈에 나타난다고
그들이 나를 기다리는것만 같다고
자정도 넘은 밤
높고 험한 령을 넘으시여
해뜨는 아침에 찾아가시였으랴

<중략>

그 쪽잠마저 못드시고
차창너머 비탈진 발이랑을 바라보시며
토지정리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그이

- 나는 인민들이 편할수만 있다면
이런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소!¹⁴⁹⁾

또한 1990년대 말의 문학작품들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며, 현지도 중 인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김정일의 모습이 형상된다.

149)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집계작, “잊을수없어라 1998년이여,” 『조선문학』 (1999. 3), pp. 16~17.

“그이께서는 지금 인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계시었다. 이런 날씨에 인민들이 병까지 들면 어쩌랴 싶으시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보니 인민들이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 고통을 겪고있다는 것을 너 무도 잘 알고있는 그이이시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밖으로 나오신 그이이시었다.”¹⁵⁰⁾

사람들이여 아시는가
힘이고 기적인
장군님의 하루가
한세기보다 긴 하루가
어떻게 흘러 가는지

너럭바위우에서
드시는 끼니는 쥐기밥
아니면 삶은 감자 몇알
식찬은 절인 오이에 무오가리
까나리가 전부이다.¹⁵¹⁾

넷째, 소설에서 김정일의 위대한 사랑은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기적처럼 소생시키는 것으로도 형상된다. 장편소설 <전환>에서는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진 ‘허담’에게 김정일이 “허담이! 눈을 뜨시오. 김정일이 왔소.”라고 말하자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한다.¹⁵²⁾ 장편소설 <푸른하늘>에서도 한 여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들마저도 손을 놓고 있을 때, 김정일이 그녀에게 “윤숙경동무! 정신을 차리시오. 정일이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녀가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며, 이

150) 박일명, “전환,” p. 7.

151) 리영삼, “위인의 천품과 하루,” 『조선문학』 (2000. 5), p. 10.

152) 김선일, “우리 당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심오한 형상,” p. 29.

에 김정일은 손가락에 물을 떠서 환자의 입에 흘려 넣어준다.¹⁵³⁾

다섯째, 소설에서는 인덕정치·광폭정치의 위대성을 형상 하여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김정일을 찬양한다.

인덕정치와 관련해 김정일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참다운 인덕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워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지도자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녀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정치가 본질에 있어서 인덕정치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정치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 있다."¹⁵⁴⁾

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인 자신이 '참다운 인덕정치'를 베풀고 있으며, 자신의 인덕정치로 인해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옹호고수'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한 소설에서도 김정일은 참다운 인덕정치·광폭정치¹⁵⁵⁾를 베푸는 너그러운 지도자로 형상되어 있다.

<동해천리>에서 김정일은 "성실한 사람이라는걸 알면서도 경력 때문에 믿지 않는다면 더욱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치적 평가, 신

153) 권정웅, 『푸른하늘』, p. 297.

15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pp. 482~484.

155) 김정일에 따르면, "인덕정치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도 한다."고 한다. 위의 글, p. 487.

임은 그의 과거경력이나 문건 보다도 평소의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정확히 내려야 합니다. 현행이 기본이지 과거는 벌써 그 사람을 평가 하는데서 부차적인 요소로밖에 되지 않습니다.”¹⁵⁶⁾라고 하여 광폭정치의 위대성을 과시하고 있다. <푸른하늘>에서는 김정일이 “남조선의 군사파쇼 통치자들과 결별하고 망명한” 최성덕(최덕신의 가명)의 ‘조국방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의 인덕정치·광폭정치의 위대성을 형상한다. 소설에서 김정일은 최성덕의 북한 방문에 대해 해당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 대해 “그 속심은 어떻든 표면상으로는 선친의 묘나 찾아보겠다고 한다는데 그걸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막아서도 안됩니다. ...우리를 적대시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말년에 뒤늦게나마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의로운 쪽을 택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근히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한다.¹⁵⁷⁾

“사람마다 성격상 특징과 경력, 자질에 있어서 천충만충이지만 그들 모두를 충하없이 대하고 믿어주는 정치”라고 하는 인덕정치·광폭정치는 ‘락원기계공장’을 찾은 김정일이 노동자, 기술자들 가운데 가정주위 환경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전폭적인 믿음을 표시하며, 그들 모두를 후보당원기간을 거침이 없이 정 당원으로 받아들일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는 것으로도 형상된다.¹⁵⁸⁾

여섯째, 소설에서 사랑의 화신인 김정일의 위대성은 그의 인민에 대한 자상함과 세심함으로도 형상된다.

<평양은 선언한다>에서 김정일은 밤늦도록 대동강변에서 속삭이는 청년남녀들이 탄광에 지원하기 앞서 마지막 밤을 즐기는 것이라는 사

156) 백남룡, 『동해천리』, p. 195.

157) 권정웅, 『푸른하늘』, p. 7.

158) “위대한 인간: 크나큰 믿음,” 『조선문학』 (1995. 2), p. 22.

실을 알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 마침 부관이 가지고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주는 자상함과 따뜻함을 보인다.¹⁵⁹⁾ 또한 여러 편의 소설에서 김정일은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우연히 만나도 그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적인 면들을 기억하며 반갑게 대하고 관심을 표한다. 예를 들어 단편소설 <기차는 정시로 간다>에서 김정일은 20년 전에 북방의 한 산간역에서 잠시 만났던 한 철길원의 이름까지 기억해내며 그를 불러 손을 잡아준다.¹⁶⁰⁾

소설에서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김정일의 자상함과 세심함을 형상함으로써 김정일이 마치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수호자인 듯한 이미지를 형성케 한다. 예를 들어 <동해천리>에서 김정일은 현지지도를 마치고 일정에 쫓겨 바쁘게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에도 배낭을 지고 보따리를 든 여인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 여인을 태우고 가며, 그녀의 배낭을 벗겨주는 등 자상함을 보인다, 또한 김정일은 차가 흔들리면 여인의 음악감상에 방해가 될까봐 자동차 속력을 늦추도록 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다.¹⁶¹⁾ 김정일의 여성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그가 살림집의 부엌구조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형상된다. 소설에서는 새로 지은 살림집을 살펴보던 김정일이 특히 부엌구조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보기엔 부뚜막과 조리대가 좀 낮은 감이 있소. 이러면 동자질을 하면서 내내 허리를 굽혀야 하는 데 하루도 아니고 한평생 하루 세끼 끼니를 지어야 하는 녀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나이들면 허리도 아프지 않겠소. 보나마나 이 집도 남자가 설계했을거요. …우리 남성동지들은 끼니를 짓는 녀성들의 수고에 대하여서는 모르고

159) 리종렬, 「평양은 선언한다」, p. 425.

160) 정기중, “기차는 정시로 간다.” 『조선문학』 (1994. 6), pp. 15~16.

161) 백남룡, 「동해천리」, pp. 2~5.

방에 올방자를 들고앉아 대접을 받을 생각만 한단말이요. 사회주의 혁명을 하지만 가정윤리적인데는 아직도 ...우리 남성동지들의 머릿속에 봉건의 유물이 남아있소. 그러니 녀성들의 애로나 고충같은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거든. 그렇지 않소? ...겨울에는 녀성들이 찬물이 아니라 꼭 더운 물을 쓰도록 관심해야 합니다.”¹⁶²⁾

소설에서 김정일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그가 어린이들이 보내는 청원편지에 빠짐없이 직접 답장을 써서 보내주며 그들의 청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형상 되거나, 또는 현지지도의 노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린이들을 차에 태워주는 것으로 형상된다.

단편소설 <봄날의 미소>에서는 김정일이 수천리 노정의 현지지도를 마치고 당 중앙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정류소에 홀로 서 있는 소녀 애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차를 세워 놓은 채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자상함을 보인다.¹⁶³⁾ 『푸른하늘』에서는 김정일이 직장에서 돌아올 엄마를 마중하러 나와 비를 맞고 서있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주며, 수건으로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을 닦아주고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여러 가지를 묻기도 한다.¹⁶⁴⁾ 또한 사랑의 화신으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은 그가 과오를 범한 당 일군에게 이른 새벽에 전화를 걸어 노래를 한 소절씩 천천히 불러 주며 격려해 주는 모습,¹⁶⁵⁾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급히 달려나오느라 미처 단추를 채우지 못한 노병(老兵)의 목단추를 채워주어 그를 감동시키는 모습,¹⁶⁶⁾ 의용군 출신인 이산가족의 아들 약혼식에 부총리를 보내어 축하해주고 선물을 전

162) 리종렬, 『평양은 선언한다』, pp. 184~186.

163) 문상봉, “봄날의 미소,” 『조선문학』 (1991. 10), pp. 7~8.

164) 권정웅, 『푸른하늘』, pp. 162~164.

165) “위대한 인간: 전화로 불러주신 노래,” 『조선문학』 (1999. 2), p. 29.

166) 김홍익, “한생과 견장,” 『조선문학』 (1999. 2), p. 37.

하는 모습 등으로도 형상된다.¹⁶⁷⁾

이 외에도 김정일의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은 '남녘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도 형상된다. 한 예로 '남녘 인민들'에 대한 김정일의 사랑과 배려를 형상한 대표적 작품인 『푸른하늘』에서 김정일은 서울의 수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걱정하며, “그곳에 부모형제들을 둔 사람들은 이 밤에 잠을 못 이룰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한다.¹⁶⁸⁾

소설에서 사랑의 화신인 김정일의 위대성은 그의 음성과 미소로도 형상된다. 대체적으로 북한 소설에서 김일성의 음성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묘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설에서 김정일의 음성은 낮고 크지 않으나 설득력 있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따뜻하고 정에 넘치게 말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김정일의 미소는 “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수정처럼 맑게 정화시켜주는 그 부드럽고 매혹적인 웃음”¹⁶⁹⁾으로 묘사되어 있다.

167) 권정웅, 『푸른하늘』, p. 28.

168) 위의 글, pp. 13~14.

169) 위의 글, p. 16.

IV. 김정일 ‘형상화’의 특징

위의 장에서 논하였듯이 북한 문학작품에서 김정일 ‘형상화’는 ‘수령형상창조’의 원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걸출한 사상이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비롯해 ‘정치가·전략가·영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 등 ‘수령의 위대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도 김일성과 다름없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이른바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에 있어 형상의 핵이라고 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형상함으로써 김정일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형상창조’와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에 있어 차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뿐이라고 하는 북한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 즉 김정일 ‘형상화’에 있어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외에도 다른 두 가지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 후계체제 정통성 구축 및 강화와 김일성과의 동일시가 그것이다. 북한은 문학작품을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구축, 강화코자 했으며, 또한 김정일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해 김일성과의 동일시를 적극 모색,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1. 후계체제 정통성 구축 및 강화

북한 문예창작에서 ‘수령형상창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유일독재체제 확립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다.¹⁷⁰⁾ 또한 북한 문학에서 김정일 ‘형상화’가 시작된 것도 1970

170) 1966년 김정일은 한 담화를 통해 문예작품에서 ‘수령형상창조’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각주13) 참조.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이 '수령형상창조'와 김정일 '형상화'가 거의 같은 시기에 본격화된 것에 대해 북한은 “이 시기 수령형상문학과 함께 수령의 계승자를 형상한 문학이 동시에 발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수령의 혁명위업 계승문제가 옳게 해결되고 수령의 계승자의 위대성이 인민들의 심장을 격동시킨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학적 반영”이며, 또한 “계승자를 추대한 우리 인민이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고 계승자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다지려는 확고한 결의의 문학적 구현”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⁷¹⁾ 이는 곧 북한문학에서의 김정일 '형상화'가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구축 및 강화에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단계에 들어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의 저술 『주체문학론』을 통해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한 '수령의 후계자형상창조'를 새롭게 공식화하고, 김일성 사후에는 '수령의 후계자형상창조'를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드는 길”¹⁷²⁾이라고 까지 강조하고 있음도 김정일 '형상화'의 정치적 의도를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 및 김일성유일체제 확립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및 강화를 위해 문학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는 1974년에 김정일이 김일성 후계자로 옹립된 후, 1976년에 발표된 시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은 이 시가에 대해 '혁명적 수령관'에 바탕 하여 김정일에게 인민들 자신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맡기자는

171)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p. 425~429; 또한 북한은 “수령이 혁명활동을 벌이고 있는 역사적 환경에서도 수령의 계승자의 형상이 적극적으로 그것도 수령의 문학과 꼭같이 창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계승자의 위대성에 기인한다”고 한다. 위의 글, p. 431.

172) 최길상,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가치,” 『조선문학』 (1997. 1), p. 9.

내용의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담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백두의 푸른 기상 한몸에 안고
 조선에 솟아오른 향도의 해발
 혁명의 붉은 기발 높이 드시고
 주체의 내조국을 빛내이시네
 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름 빛나라 김정일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이 강산에 꽃피우는 은혜론 사랑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시네
 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름 빛나라 김정일동지¹⁷³⁾

그러나 권력세습과 관련해 김정일은 이미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후계자로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계승할 것임을 시사한 바, 이는 김정일이 1960년에 지었다는 가사 <조선아 너를 빛내리>와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해 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 강산이 가슴에 안겨 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173)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p. 388에서 재인용.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¹⁷⁴⁾

천만대군 이끌고 험산준령 넘고넘어
백두의 행군길을 곧바로 이어 가리
침략자 미제를 이 땅에서 내몰고
통일된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라

삼천리강산을 락원으로 꽃 피워
조선의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리
그 어떤 원썩도 다치지 못하게
내 조국 영원히 지켜 가리라.¹⁷⁵⁾

위의 기사들에 대해 북한은 김정일이 지닌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크나큰 포부와 필생의 사명을 이 세상에 선포한 뜻 깊은 시로서 영원 불멸할 거대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이 시는 “단순한 시가인 것이 아니라 위대한 령도자가 수령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시대와 력사 앞에 다진 엄숙한 맹세를 장엄하게 선포한 기념비적 문헌이라고 말해야할 것”이라고 한다.¹⁷⁶⁾

174) 김려숙, “룡남산과 더불어 영원할 불멸의 명작들,” 『조선문학』 (2000. 9), p. 8.

175) 위의 글, p. 9.

176) 위의 글, p. 8; 김정일은 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들어갔으며, 대학 다니는 동안에 <조선아 너를 빛내리>,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제일강산>, <진달래> 등을 창작했는데, “이 명작들에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을 온 세상에 노래하는 불후의 명작”¹⁷⁷⁾이라고 한다. 송가에서는 김정일이야말로 수령이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 태양의 위업을 빛내이는 인민의 영도자이며, 북한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꾸려준 행복의 창조자이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 불패의 모루를 일떠세운 정의의 수호자라고 노래한다. 또한 김일성 사망 한 달여 전에 발표된 오영재의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어>는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한 1964년부터 1994년까지 김정일 영도의 30년을 찬양하고 있다.¹⁷⁸⁾

시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에서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김정일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시에서는 김일성 사망일에도 김정일이 백두산 답사 행군 대오만은 행군을 멈추지 않고 “자기 로정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을 내렸는 바, 이는 “백두산 행군길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 혁명의 명맥이 끊어진다는 것과 같고,” “백두의 그 길에서 조선이 왔고 백두의 그 혈통만이 천만대 이어갈 조선의 피줄기이거늘 닥친 비분의 언덕이 천만층 높다한들 그 길, 그 혈통은 순간이나마 끊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 수령님 생전에 그토록 바라신 것도 백두의 혈통을 이어 나가는 것이었다.”라고 한다. 북한은 김정일이 백두산 답사 행군을 계속하도록 한 것은 “이 길만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영원한 혁명의 행

관통되고 있는 일관된 사상정서적 기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그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렬한 체험세계와 열정,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격양된 분출”이라고 한다.

177) 리창유,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pp. 5~7.

178) 오영재,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어,” pp. 43~48.

군로임을 온 세계에 힘있게 확증한 것”으로, 여기에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그 후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의 진리가 맥박치고 있다.”고 한다.¹⁷⁹⁾

소설에서도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그가 이미 1970년대부터 김일성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형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총서 <불멸의 향도>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첫 장편소설 <동해천리>이다. 197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형상한 『동해천리』에서 김정일은 당·정·군 간부들에 대해 막강한 실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소설에서 김정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무원총리를 전화로 불러 현지보고를 듣고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연로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대동하고 새로 만든 함정의 진수식에 참석하여 함정의 성능을 시험하며, 또한 인민무력부장은 현지도도를 다녀온 김정일에게 모든 것을 보고한다.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는 김정일의 권력행사가 최고결정권자로서의 권위를 지니게 되며, 이를 형상한 대표적인 작품은 <력사의 대하>와 <영생>이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과정을 그린 <력사의 대하>에서 김정일은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최광 총참모장 등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으며, 미국과의 ‘핵대결전’을 논의하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도 김정일이 주도해 나간다. 이 회의에는 김일성도 참석하나, 참석자 모두는 김정일의 주도에 따르며, 김정일이 제의한 ‘핵무기전과방지조약’의 탈퇴에 전원 동의한다. 김일성 역시 김정일의 제의를 ‘경천동지적 대결단,’ ‘령장다운 대결단’이라고 치하한다.¹⁸⁰⁾

179) 김일수,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한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시적형상,” p. 9.

180) 정기중, 『력사의 대하』, pp. 314~321.

<영생>에서는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결단을 내리는 김정일의 담대함을 형상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해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등 국방위원들, 대외부문 책임일꾼들이 모여 ‘흑연감속로 로심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숙의하던 중 김정일이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조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심교체’를 명령하자 모든 국방위원들은 김정일의 뜻을 따를 것임을 외치며, 이에 김일성도 동의한다.¹⁸¹⁾

또한 북한 소설에서는 김일성이 그의 생전에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매우 컸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를 역설했음을 형상하고 있다.

<영생>에서는 김일성이 노투사들과 노간부들에게

“그를 후계자로 가지고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 훌륭한 후계자를 가지고있는 행복감이 클수록 나는 생전에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서두르고있습니다. ··· 동무들, 전통이 위대하면 계승도 위대한 법입니다. 머지 않아 21세기입니다. 21세기는 김정일시대입니다. 나는 21세기에 대하여 마음을 놓습니다. 김정일동지는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을것입니다. 그는 모든 성공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그가 없으면 조선도 없고 자주화된 세계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조국통일도 성취되고 세계의 자주화도 실현되며 21세기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동무들은 이것을 잘 알고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온 것처럼 그를 잘 만들어줄 것을 바랍니다.”¹⁸²⁾

라고 말한다. 또한 <력사의 대하>에서 김일성은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혁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 당과 국

181) 백보흠·송상원, 『영생』, pp. 85~91.

182) 위의 책, p. 272.

가, 군대의 책임적 위치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잘 보좌해주어야겠소. 모두가 자기 책임을 다하여 김정일동지의 사업부담을 덜어야겠소. 그래 나도 지금 농사일은 물론 철도와 광산, 탄광 등 경제부문 여러사업을 맡아보고 있는 것이요.”¹⁸³⁾라고 말한다.

2. 김일성과의 동일시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적 양상은 김일성과의 일치체를 통해 김정일의 위대성 및 인간적 품모를 형상하는 데에 있다. 이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및 강화를 위한 문학부문의 시도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시도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이래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일시는 특히 1990년대를 통해 양산된 시작품들에서 잘 형상되어 있다.

우주처럼 끝없는 수령님의 사랑은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으로 우리 몸에 닿고
해빛처럼 밝은 수령님의 미소는
친애하는 그이의 미소로 우리 몸을 감쌉니다¹⁸⁴⁾

다음의 시는 1992년에 복송된 비전향장기수 ‘리인모’의 헌시라고 하는 바, 이 시에서는 김정일 역시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인류의 운명’이며 ‘운명의 신,’ ‘운명의 구세주’로 불리고 있다.

183) 정기중, 『력사의 대화』, p. 384.

184) 한원희, “신년세배 드리웁니다,” 『조선문학』 (1994. 1), p. 7.

하기에 내 오늘
 운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운명은 자애로운 당신
 민족과 인류의 운명도 위대한 당신
 저는 심장으로 말합니다
 거룩하신 김정일, 당신은
 진정 운명의 <신>이십니다
 둘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십니다.¹⁸⁵⁾

또한 김일성 사후의 시작품들은 김일성이 김정일을 통해 영생하며, 김정일은 김일성의 화신이라고 형상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치를 강조한다.

음성도 모습도
 사상도 의지도
 어버이 수령님과 그리도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이시기에
 높이 모시럽니다
 어버이수령님 모시던 그 마음으로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김정일장군님을 모시럽니다.¹⁸⁶⁾

언제나 뵈고싶은 수령님모습
 인자하신 그 영상 그려볼 때면
 경애하는 그의 미소 어리여오네
 아 수령님은 우리의 김정일동지¹⁸⁷⁾

185) 『조선문학』 (1994. 2), p. 18.

186) 민병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조선문학』 (1995. 1), p. 7.

187) 강명학, “수령님은 우리의 김정일동지,” 『조선문학』 (1995. 2), p. 21.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닌 후대관을 노래한 '우리 식 서사시'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일한 후대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두 사람을 일치시키고 있다.

하여 그 사랑으로 미래를 키우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을
내 온 세상에 소리높이 칭송하나니

<중략>

아, 수령님의 기쁨으로
수령님의 행복으로
수령님의 희망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중략>

그렇다
만고풍상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아이들을 위한 한평생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아이들을 위한 한평생¹⁸⁸⁾

188) 최길상,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후대관을 숭고한 높이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시대의 명작,” 『조선문학』, (1995. 11), pp. 13~14.

또한 시작품에서는 김정일 역시 장구한 인류역사가 아직 알지 못하고 맞이해 본 적이 없는 회세의 위인으로 형상된다.¹⁸⁹⁾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일시하여 김정일을 형상화하는 것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설에서 김정일 역시 민족의 운명이며 사회주의의 수호자로 형상되어 있다. 김정일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첫 날부터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아 온 수령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체현하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확고부동한 생활신조로, 인생관으로 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¹⁹⁰⁾ 하는 모습으로 형상된다. 소설에서는 특히 김정일이 인민들에 대해 ‘친어버이’로서의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김일성과 동일하게 형상함으로써 두 사람이 일치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보내는 청원편지에 일일이 답장해주며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 주는 것, 촌로의 건강문제, 또는 방직공장 여자노동자의 혼사문제를 염려하는 것, 청춘남녀 노동자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과오를 범한 전사, 또는 당 일군을 사랑과 믿음으로 회개시킴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무장시키는 것, 가정 주위 환경과 경력이 복잡한 사람을 포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소설에서는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하여 인민과 생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을 동일하게 형상한다.

189) 박춘택,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을 칭송한 세계 혁명적송가문학,” 『조선문학』 (1999. 2), p. 8.

190) 머리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5.

V. 평가: 김정일 ‘형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성과: ‘인민적 수령’의 이미지 형성

이른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이 김정일 유일체제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이며, 사회주의제도 확립과 주체사상 창시가 김정일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서 ‘추앙’받게 한 주요 업적이라고 한다면, 김정일에게서는 그에 상응하는 ‘빛나는 업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 문학에서 김정일 ‘형상화’작품과 김정일 ‘형상화’작품은 동일한 기본원칙에 따라 창작되나 그 소재와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 사상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이 형상되나,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상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이 형상된다. 또한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닌 전략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데 있어서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수많은 김정일의 무용담이 소재가 되고 있으나,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은 대부분이 1993년 미국과의 ‘핵대결전’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른바 영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데 있어서도 김정일에 비해 김정일은 그 소재부터가 빈약하다. 그러나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는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충효의 화신으로서, 걸출한 문예이론가이자 문학예술의 영재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함으로써 김정일과의 차별화를 피하는 한편,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크게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소재 및 내용을 김정일 ‘형상화’ 작품들과 거의 동일하게 한다는 데에 특성이 있다.

이 외에도 김정일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김정일 역시 인민과 기쁨, 고통을 함께 하는 지도자로 그리면서도 김일성보다 더 눈물이 많고 정이 많으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 늘 사색하는, 사려 깊은 지도자로 형상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서 김정일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형상되어 있다.

김정일은 또한 음악을 매우 사랑하며 항상 음악과 함께 하는 지도자로 그려져 있다. 그는 사색을 하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분노를 삭일 때도 음악을 들으며, 피로를 푸는 데에도 음악과 함께 한다. 또한 김정일 ‘형상화’ 작품들에서는 특히 김정일을 특히 미국과의 대결에서 강한 지도자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옹호 고수 해 나갈 탁월한 영도의 예술가로 형상함으로써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있으며, 군부대 현지도도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통해 김정일의 애병사상과 군중시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 김정일을 형상 하는 데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김정일을 매우 소박하고 소탈한 지도자, 푸근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지도자로 형상한다는 것이다. 소설에서 김정일은 당·정을 이끌고 군대를 지휘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라던가 위세를 드러내지 않는다. 당·정·군 간부들과의 공식석상에서도 그는 매우 겸손하고 소박하며, 공적 업무보다도 간부들의 건강과 그들 가족의 안부를 더 궁금해하고 염려해 준다.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김정일은 특히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배려는 평양 주민들보다도 현지도도의 노정에서 우연히 만난 산촌, 농촌 주민들과 탄광지대 주민들에게 더 각별하다.

또한 소탈하면서도 푸근한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은 그의 미소로도 형상된다. 북한은 김정일의 미소를 “참으

로 매혹적"이라고 한다. 그 미소는 “사람들의 막혔던 가슴을 풀어헤쳐 주며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품에 안기고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미소”이며,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지닐 수 있는 사랑의 미소”¹⁹¹⁾라고 한다. 북한은 이와 같이 김정일의 미소를 형상함으로써 그가 인정미 있고 인간성이 풍부하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은 위에서와 같이 소설에서 김정일을 매우 소박하고 소탈한 지도자, 푸근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지도자로 형상함으로써 그에 대한 ‘인민적 수령’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김일성 ‘형상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소설에서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권위와, 주체 사상을 창시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서의 위엄을 강하게 드러내며, 이에 대해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대한다. 김정일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은 김정일의 자애로운 사랑과 배려에 대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그의 품에 뛰어들어 소리를 내어 운다.

위에서와 같이 북한은 문학작품에서의 김정일 ‘형상화’를 통해 김일성과 차별화 되면서도 동일한 ‘수령’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김일성보다 더 ‘인민적’인 수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김정일 ‘형상화’의 주요 성과로서 나타난 ‘인민적 수령’의 이미지는 ‘인덕정치·광폭정치,’ ‘선군정치,’ ‘음악정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① 인덕정치·광폭정치

1990년대 초 김정일이 “통이 크고 대담한” 인물이란 점을 부각시

191)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 p. 343.

키기 위해 북한이 개념화한 인덕정치는 김정일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정치를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그의 담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통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 주고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빛내여 나가도록 보살피 주기 때문에 당의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도 한다."¹⁹²⁾라고 밝히고 있으며, 인덕정치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 있다."¹⁹³⁾고 강조한다. 또한 북한 『평양방송』(2001.9.10)은 김정일의 광폭정치로 민족대단결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남북관계가 과거 대결시대에서 화해시대로 전환된 것은 김정일의 정치방식인 광폭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광폭정치를 인간애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민족대단결의 정치 등으로 규정하고 광폭정치는 조국통일의 실현을 담보해 주는 정치라고 하여 그 의미를 격상시키었다.¹⁹⁴⁾

② 선군정치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추대된 직후 북한 『중앙방송』(1998.10.20)은 논설을 통해 '선군정치'를 김정일 특유의 정치방식으로 공식화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논설에 따르면, 선군정치 방식은 "바로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며, "선군정치는 단순히 군사를 위한 군사,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상의

192)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p. 487.

193) 위의 글, p. 484.

194) 『연합뉴스』, 2001. 9. 10.

높이에 이르게 하는 정치”로서 “혁명과 건설의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정치, 일석다조의 현명한 정치”라고 한다.¹⁹⁵⁾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은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군대가 강해야 경제 건설의 평화적 조건이 보장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수호와 경제력 강화를 추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 『중앙방송』(2001.2.18)은 ‘절세의 위인, 위대한 노선’이라는 제목의 정론프로를 통해 김정일이 ‘선체제수호, 후경제회생’으로 요약되는 선군정치를 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지난해 초 관계일군들과 1990년대 고난의 시절을 회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선군혁명노선은 나의 신념”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군노선을 택하게 된 경위와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고 한다. 즉 김정일은 지난 1990년대 사회주의국가의 붕괴와 수백 년만의 대홍수·가뭄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몰아쳤던 최악의 시기에 “선군혁명노선에서 한치고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했으며, “경제우선시로 나간다면 공장이 숨쉬고 인민생활이 한결 편일 수 있었으나 목전의 호구지책을 위하여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며 존치하고 지켜온 사회주의를 위협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중앙방송』은 김정일이 그 누구보다도 난관을 겪는 경제사정 때문에 마음쓰면서도 공장이나 농촌보다 군부대 현지도에 나선 것도 “선군노선을 구현하기 위한 헌신의 상징”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에 대해 문무를 겸비했다는 의미의 ‘장군형의 정치’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다. 북한 『평양방송』(2001.5.22)은 ‘선군

195)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읽기』 (서울: 지식공작소, 2000), p. 124~126에서 재인용.

정치는 우리 시대 사회주의의 기본 정치방식이라는 보도물을 통해 김정일을 ‘현시대의 위대한 장군형의 정치가’라고 하면서,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는 선군정치 방식은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정치가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김정일은 “비상한 군사적 예지와 정치적 결단성, 전당·전군·전민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뛰어난 조직적 수완과 영군술,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닌 분”이라고 평가했다. ‘장군형의 정치가’라는 호칭은 1999년 이후 몇차례 등장했으나, 북한은 최근에 다시 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③ 음악정치

김정일의 ‘음악정치’는 2000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정치 용어이다. 북한은 2000년 2월 7일,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성 발표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 보지 못한 우리식의 특이한 ‘음악정치’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노래로 이겨내며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김 총비서의 ‘음악정치’가 가져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⁶⁾

남한내 지하당이라고 하는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의 기관방송도 2월10일 방송된 ‘김정일장군님의 풍부한 음악세계’라는 프로에서 김정일이 유년시절부터 음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사연 많고 추억 많은 인생의 회로애락을 음악과 함께 해왔다고 하며, 김정일의 첫 사랑은 음악이었다고 소개하였다.¹⁹⁷⁾ 또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최근 수년간에는

196) 『연합뉴스』, 2000. 2. 8.

197) 『연합뉴스』, 2001, 2. 25.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사회주의 승리가 보인다>, <찬란한 미래 향해 앞으로> 등 이른바 '혁명가요'를 발표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⁸⁾

2. 문제점: 사실의 왜곡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수령형상창조'의 역사문헌적 의의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은 수령의 위대성과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역사문헌적 의의가 크며, 따라서 수령형상 문학작품에서는 역사문헌적 의의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중요 인물의 관계, 사건줄거리 등을 역사적 사실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 해야 하고, 작품에서 허구적 형상 창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작품의 역사문헌적 의의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령형상창조'에 있어서는 “작가들이 사실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식의 수령형상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⁹⁹⁾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수령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해 다른 인물들을 형상 하는 데 있어서는 적들에 대한 형상화도 중요한 바, 적들에 대한 형상화에 있어서는 적들을 회화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그리지 않고 역사적으로 실재한 현실적인 인물로 재현하며, 그들이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해 패배하게 되는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밝힘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반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대관계에 있는 부정인물을 그럴 때에도 그들의 힘을 강하게 보여 주어 그것을 이겨내는 수령의 위대

198) 『연합뉴스』, 2000. 12. 1.

199) 머리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5.

성이 진실하고 감명 깊게 안겨오도록 형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 '수령형상창조' 문학 작품은 사실적 자료에 기초하기보다는 사실마저 굳이 왜곡하며, 수령과 맞서는 '적'들을 심하게 희화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말해 주는 단적인 예가 1994년에 있었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김일성과 전 미국대통령 카터와의 평양회담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다.

1994년 당시 북한에 대한 핵의혹은 세계적인 관심사였으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 미국대통령 카터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하였음은 알려진 대로이다. 그러나 이를 소재로 한 북한 소설들에서 김일성은 당시 상황의 긴박감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하여 회담에 몰두하기보다는 '항일혁명투사'의 유가족을 만나는 일을 더 중요시하는 오직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형상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미제'의 전 대통령 카터는 평양에까지 김일성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구걸외교'를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적'들을 과소평가한 '수령형상창조'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매혹>이 있다. 소설에서 카터는 매우 소심하고 불안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회담에 있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에 대해 줄곧 찬탄을 금치 못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카터는 여성을 몹시 하대하는 신경질적인 인물이며, 이로 인해 그의 부인 로잘린 여사가 힘들어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소설에서 로잘린 여사는 김일성이 낚시꾼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유람선을 멈추고, 항일혁명투사의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회담을 뒤로 미루는 데 대해,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을 주석님과 대비하면 할수록 혹은 하느님과 소년처럼 혹은 반디불과 태양처럼 너무도 뚜렷이 대조되었다. ... 하느님의 자애에도 비기지 못할 주석님의 그 사랑의 정치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하며 그이를 불러 무엇이라 칭한단 말인가. ... 주

석님의 나라, 주석님의 이 대가정을 구태의연한 <포함외교>로 깨뜨려보겠다는 것은 정말이지 닭알로 바위를 깨보겠다는 것만치나 어리석은 만용”²⁰⁰⁾

이라고 말한다.

또한 소설에서 미국의 ‘빌리그라함’ 목사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아,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느님아버지이시여, 나는 보았습니다. 비로소 오늘에야 해쉴는 동방에서 나는 당신을, 이 땅에 강림하신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기도한다.²⁰¹⁾ 장편소설 <영생>도 김일성과 카터의 회담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 제재 문제가 화제로 오르자 김일성이 “우리는 제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에 카터가 김일성에게 완전히 매혹되어 회담 내내 시종일관 감동에 휩싸여 김일성에게 “당신은 ‘현세의 모세’”라고까지 고백한다.²⁰²⁾

또한 소설에서 카터는 김일성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김일성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그는 위대한 분이다. 인간중의 인간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난 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김일성과 대면한다.²⁰³⁾ 그런가 하면 이 소설에서도 역시 빌리그라함 목사는 김일성을 “력사에 다시 나타나지 못할 선지자”라고 말한다.²⁰⁴⁾

‘수령형상창조’ 작품에서 사실의 왜곡과 ‘적’들의 회화화 및 과소평가는 김정일을 형상한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된 소설들 가운데 하나는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이다. 이 작품은 1993년 당시의 북한 핵사찰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대결을 두뇌전, 전략전으로

200) 김준학, “매혹,” 『조선문학』 (1998. 9), p. 33.

201) 위의 글, p. 33.

202) 백보흠·송상원, 『영생』, pp. 238~259.

203) 위의 책, p. 107.

204) 위의 책, p. 110.

규정하고 김정일이 당시 미국대통령 클린턴을 압도하는 것으로서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김정일과 기본 갈등대상 인물로 설정된 클린턴은 만만치 않은 적수로서 오만하고 횡포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세계제패'를 위해 온갖 흉계를 꾸며대는 최고권력자, 인생을 전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개인 이기주의자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클린턴의 정신상태, 심리상태는 김정일의 지략과 공격정신, 비상한 결단에 대해 공포를 느낀 나머지 전쟁결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온밤 궁핍거리며 잠들 수 없었다. 줄곧 그를 괴롭힌 것은 북조선 국 최고사령관의 지략과 공격정신, 비상한 결단에 대한 신비의 공포였다. 그는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결단이라고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왈자하니 떠들 때부터 그가 지니고 있는 지략과 거침없이 그리고 련속적으로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그 공격정신에 놀랐으며 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의 상대를 덮어놓고 무서워하기에는 그는 너무도 현명했다. 그는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세계의 <유일초대국>과 결투를 벌리는 그 용기와 배심에 놀랐으며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제때에 급소를 타격하는 그 종횡무진하는 술책에 감탄하였으며 승리를 확고히 믿는 그 신념과 의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여 나날이 자신심은 적어지고 불안은 커갔으며 따라서 그의 의아쩍은 감탄은 마침내 미칠듯한 분노로 바뀌는 것이었다.²⁰⁵⁾

또한 소설에서 클린턴은 컴퓨터에 의한 북한과의 모의전쟁에서 최종적인 답을 얻으려고 하는 데, 전자계산기는 전쟁 개시 2주일만에 북조선군에 40여만의 미군병력을 파멸시키고 800억 달러의 물질적 손실을 주고 승리하리라는 답을 내자, 이를 보고 경악한 클린턴은 전

205) 정기중, 『력사의 대하』, pp. 467~468.

쟁을 포기하고 북한에 대해 협상을 제기하며 투항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김정일의 뛰어난 지략과 담력, 연속적인 드센 공격 때문에 결국 클린턴이 패배하고 만다는 것이다.²⁰⁶⁾ 북한은 <력사의 대화>에 대해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창작적 노력은 시종일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작가는 역사적 자료들과 실화들을 깊이 연구하고 형상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것은 형상의 사실성, 신빙성과 지성도를 높여주고 독자에게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예술적 흥미, 친근감을 한층 돋구어주었다. ... 이 모든 것은 작가가 수령형상작품의 생리에 맞게 소설을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창작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여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²⁰⁷⁾

소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엮어 만든 이야기책이다. 따라서 그 내용자체를 가지고 사실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 그러나 이른바 ‘수령형상창조’ 문학은 다르다. 제2장에서 논하였듯이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들 가운데 하나는 작품 창작에서 역사에 없는 사실을 꾸며내지 말고 인위적인 인간관계를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수령의 혁명역사와 관련한 작품에는 허구를 마음대로 넣지 말아야 한다. 자료고증사업을 잘하여 작품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고 하여 허구를 무시하면 안된다. ... 간단한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서도 그와 관련된 생활에 대한 폭넓은 표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상, 생활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뚜렷한 지향을 가진 환상은 풍부할수록 좋다.²⁰⁸⁾

206) 위의 책, pp. 476~477.

207) 장형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형상에서 거둔 혁신적 성과,” p. 48.

208)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p. 233~235.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되 허구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그의 주장은 북한 문학의 수령형상창조 작품들에서 ‘지나친 허구와 환상들’로 인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령형상창조’ 작품에서의 사실의 왜곡과 ‘적’들의 희화화 및 과소평가는 남한 실정과 관련해 더욱 노골적이다.

장편소설 <푸른하늘>에서는 김일성의 위대성을 형상하기 위해 사실 왜곡은 물론 당시의 한국대통령 김영삼을 희화화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1994년 당시 카터가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알리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 <김일성주석이 당신을 만나주겠다고 합니다.> 그날 대사관에 가기전에 청와대에 잠시 들렀던 카터는 김일성주석의 의향을 이렇게 한마디로 전하고는 얼굴에 이상야릇한 웃음을 띠었다. 그러자 김영삼의 얼굴은 푸르딩딩해졌다. 그 웃음은 김영삼을 알잡아보는듯한 매우 모멸적인 것이었다. 약삭빠른 측근들은 그 웃음이 카터가 김일성주석을 만나고나서 하고싶은 말(너는 김일성주석의 발바닥에도 가지 못할 소인이다)를 담고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었다.²⁰⁹⁾

또한 『푸른하늘』에서는 일산에 위치한 ‘홀트고아원’이 등장한다. 고아원 창시자는 해리 홀트라는 미국인이며 600명 정도의 고아들이 수용되어 있고, 그 중 (미군부대에서 만들어지는) 혼혈아가 72%나 된다. 다음은 소설에서 이 고아원을 찾아간 남한의 신문기자 한영국이 하는 독백이다.

이제 교실성성격의 소유자인 원장이 어느 음침한 날 밤 아이들을 무더기로 팔아 넘길 수도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어느 한 억만장자

209) 권정웅, 『푸른하늘』, p. 320.

령감의 로쇠를 막기 위한 <보약>으로서 아이들의 생신한 혈액이 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어느 한 고명한 박사의 실험실에서 아이들의 육체가 심장, 폐장, 신장 등으로 세밀히 분해되어 다른 인체에 이식되거나 같은 포유류와의 생리적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를 살펴보는 대상으로 되어 백쥐나 백토끼보다 원가가 낮은 혈값으로 흥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²¹⁰⁾

『푸른하늘』에서는 1984년 당시 북한의 수재물자 인도와 관련한 남북 적십자실무대표 접촉 장면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남측대표의 발언에는 제나름으로 한조항 한조항 모두 뜻이 있기는 한데 그대신 전혀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그래도 명색이 구호를 받는 쪽의 대표가 아닌가, 그런데 인사치레조차 푹푹히 차리지 않았고 랭랭한 얼굴로, 그거나마 간혹 웃음을 짓는다고 하는 경우에도 로골적으로 모멸에 찬 시선을 날리며 지어 적의를 보이고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남측수석대표는 눈살이 곳곳해져서 쳐다보는데 북측 단장은 미소를 띠고 설명을 계속하고있다.²¹¹⁾

『푸른하늘』에서는 1984년 당시 남한 대통령 전두환의 응접실 내부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는 먼 옛날 것과 최현대의 것이 아무런 조화의 고려가 없이 한데 모여있는 것이다. 한쪽벽에 세워놓은 자그마한 진렬장에는 이 방주인의 취미와 의도가 잘 나타나고 그 효과가 뚜렷한 기념품이 몇 점 놓여있었다. 맨 처음 것은 보기에든 스산한 두개골이었다. 뼈는 대체로 우유빛이었는데 어떤데는 오래된 상아처럼 누릿누릿하였다. 이것은 어느 고고학적 출토품이거나 어떤 골상을 연구하기 위한 것

210) 위의 책, p. 99.

211) 위의 책, p. 119.

이 아니고 월남과병때 전두환의 수하에 있던 참모장의 두개골로서 그는 전두환을 반대하는 반변을 일으키려다가 적발되어 처단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징벌받은 <변절자>의 모습이라는데 대해 전두환 자신을 별로 구구한 설명을 가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보는 사람 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지 명백했다.²¹²⁾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북한의 현실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빈터우에서 협동화의 새 봄을 불러오신 아버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전설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전후의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엄혹하고 준엄하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지고도 남았을 이 시련 속에서 조선은 사회주의붉은기를 계속 지켜내고 있으며 오히려 강행군을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고 있다. 다시한번 세계는 놀라움 속에서 20세기의 최대의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의 영재, 창조의 신을 우러러 보고있다.”²¹³⁾고 한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이야말로 “평양바람으로 사회주의 재생의 숨결을 주신분”이며, “사회주의가 령수로 받드는분”이고, “20세기 사회주의기 관차를 21세기의 한복관으로 이끌어 가시는 혁명의 사령관”²¹⁴⁾이라고 노래한다. 김정일 자신도 “당과 수령의 인덕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가장 값높고 존엄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생활력은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에서 뿐

212) 위의 책, p. 179.

213) 김성우, “전설은 계속된다,” 『조선문학』 (1999. 4), p. 23.

214) 오필천, “영원히 빛나시라,” p. 20.

아니라 그들의 날로 향상되는 건전하고 평등한 물질문화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을 모르며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일생동안 끊임없이 배우며 무병장수를 누리고 있다.”²¹⁵⁾고 말한다.

사실상 실속이야 어떻든 간에 외형상으로 보아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문학에서는 체제 고수 및 강화를 위해서라도 위와 같이 김정일을 형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1990년대를 통해 더욱 악화된 극심한 식량난과 기아사태,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 실태 등은 전지전능하고 만사형통인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김정일의 인덕정치의 위대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문학작품에서 형상되어 있는 김정일이라면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일시에 타개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위기가 초래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문학작품에 형상되어 있는 김정일의 능력과 현실에서의 김정일의 능력은 엄청난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북한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유지·강화와 ‘수령 김정일’의 이미지 형성이라는,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가 지닌 정치적 의도를 구현하는 데 있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로 모면하고자 한다.

단편소설 <전환>에서 김정일은 인민들과 똑같이 강낭죽과 죽을 먹으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부대 현지도도를 강행하고, 이에 대해 한 촌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화하여 북한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힘주어 말한다.

215)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pp. 484~485.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하는데 실지 <고난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건 장군님 한분뿐이시다. 어디 량심으로 말해봐라. 내가 빈말을 하니. 너도 텔레비를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험한 산밭을 타고 계시지 않느냐. 이 조국을 지켜주구 우리 운명을 지켜주시려고 말이다. 식사도 인민들과 똑같이 하겠다고 하시면서 강냉밥과 죽을 자신다고 하더라. 어쩌면 우리 장군님께서... 장군님을 잘 모신다는게 어떻게 하는거냐. 말루만 하문 그게 장군님을 잘 모시는거냐. 탄을 많이 캐야지. 탄을,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갑자기 잃고 지금 심신이 얼마나 괴로우실테냐. 장군님을 잘 모시는게 백성된 도리구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지. 갱심을 해라. 갱심을..."²¹⁶⁾

또한 북한 문학작품에서 형상되고 있는 김정일의 인덕정치·광폭정치의 위대성이 현실과 크게 차이가 있음은 북한 사회의 성분별 계층 구조와 적대계층(복잡군중)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은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적 성분에 따라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해 놓았으며, 그 가운데 특히 '계급적 적대자'와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적대계층(복잡군중)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가한다. 이른바 불순분자, 반동분자들로 낙인찍힌 이들에게는 사회진출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이들은 강제노동, 강제수용, 공개처형 등 인권유린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분의 계층화에 의한 불합리한 주민 차별정책이 동요계층 및 적대계층의 불만 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상호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북한은 주민의 계층간 이동을 시도해 온 바, 이는 곧 기본군중은 물론 복잡군중까지도 체제내로 포섭하겠다는 것이며, 이른바 김정일의 인덕정치와·광폭정치를 뜻한다.

216) 박일명, "전환," pp. 9~10.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출신성분이나 과거 경력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의 사상을 기본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당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가정 주위환경이나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어떠한 관계없이 사랑의 한푼에 안아 따뜻이 보살피 주고 계신다.²¹⁷⁾

그러나 위와 같은 김정일의 인덕정치·광폭정치의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적대계층에 속한 부류들은 여전히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관계없이 구속·체포되거나 강제 수용되고 공개 처형된다.²¹⁸⁾

위의 내용들 외에도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학작품에서 김정일은 인민 속에서 인민과 함께 사는 지도자로 형상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 김정일은 대중 앞에 잘 나서지 않으며, 따라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존재라고 한다.²¹⁹⁾ 이는 김정일의 공식 군중연설은 1992년 조선인민군 창건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조선인민군 장병에 영광 있으라”라고 발언한 것이 유일하다는 사실²²⁰⁾로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소설에서와 같이 김정일은 한 밤, 또는 새벽에까지 일을 하는 지도자이며 시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일군들을 소집하여 일을 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알려진대로 북한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15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지내왔으며 그의 사후에는 ‘태양절’로 이름하여 매년 축하잔치를 벌이

217) 『로동신문』, 1995. 1. 15.

21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13~130 참조.

219) 1991년 탈북한 전직 북한외교관과의 면담내용

220)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김영사, 2000), p. 48.

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북한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행사를 벌인다. 그러나 북한 소설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김일성의 생일이 묘사되어 있다. 단편소설 <아침>에서 광산마을에 사는 한 '인민반학생'의 집 쇠가마 속에서 풀죽이 끓는 것을 보고 김정일은 잠시 과거를 회상한다.

어느 해였던지 ... 수령님의 생신날을 앞두고 인민들이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그에게 생신상을 차려 드리기로 하였다. 그때 수령님께 서는 얼마나 노하시었던가. ... 동무들이 쓸데없는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동무들이 정 소원이라면 온 나라 아이들에게 옷이랑 신발이랑 학용품들을 다 주도록 해주시오. 그게 나한테는 제일 기쁜 생일상입니다. ... 그때부터 태양절이면 수령님의 생일상을 온 나라 아이들이 받고 있다.²²¹⁾

221) 리명, “아침,” 『조선문학』 (2001. 2), p. 9.

VI. 결 론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문학의 ‘수령형상창조’란 문학작품의 허구성을 적극 활용한 수령 이상화 작업의 일환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가 김정일 이상화는 물론 김정일 유일 체제의 정통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며,²²²⁾ 따라서 1990년대이래 현저하게 증대, 강화되고 있는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역시 김정일 이상화와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유지·강화와 관련해 증대한 의의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 문학작품에서의 김정일 ‘형상화’를 분석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바,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유지·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문학작품에서의 김정일 ‘형상화’를 통해 북한은 김정일과 차별화 되면서도 또한 동일한 ‘인민적 수령’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 김정일 후계체제로 하여금 ‘주체혈통’의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토록 하였으며, 나아가 후계체제의 유지·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이상화에 있어서는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²²³⁾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

222)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을 형상한 작품들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자애롭고 인자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설에서 그려지는 그의 항일 무장투쟁 내용을 믿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수립,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김운희(가명: 30대초반 여성으로 1997년 입국했으며 북한에서 북한 문학이론 전공으로 박사원 3년을 수료함)와의 전화인터뷰 내용.

223) 본 연구와 관련해 다섯 명의 북한이탈주민들(김운희외4명)과 전화인터뷰를 하였는데, 다섯 명 모두가 한결같이 문학작품에서 형상된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정일은 김일성보다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편이며 특히 문학예술 부문에서 천재라고 인식되어 있기는 하나, 그는 호전적이며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날카로운 성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 김일성의 힘으로 권력을 세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감정은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또한 대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형상화’ 작품을 매우 재미있게 읽으며 작품내용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편인데 반해, 김정일 ‘형상화’ 작품에 대해서는 꾸며낸 신화 같다고 하여 믿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가 투쟁업적도 없고 군부만을 우대하며, 경제난을 초래했다는 것 때문에 일반주민들 사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문학의 ‘수령형상창조’가 수령 유일독재체제의 유지·강화, 또는 북한주민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절대적인 의의를 갖는다거나, 수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문학의 대중교양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북한문학의 ‘수령형상창조’의 의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문학작품에서의 김정일 ‘형상화’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유지·강화 및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²²⁴⁾ 따라서 북한 문학의 김정일 ‘형상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연구결과들은 향후 김정일 체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24) 전화 인터뷰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상교양의 목적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수령형상작품을 읽도록 적극 장려하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작품을 읽고 토론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대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수령형상작품들을 재미있게 읽는 편이라고 하며, 이는 수령형상작품의 내용이 재미있고 다양한 형상수법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성철 외. 1999.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박태상. 2000. 『북한문학의 현상』. 서울: 깊은 샘.
이주철. 2000. 『김정일의 생각읽기』. 서울: 지식공작소.
통일부. 1999. 『김정일시대 북한 시문학의 경향』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서, 12.6).
통일연구원. 2000.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 북한문헌

- 강명학. 1995. “수령님은 우리의 김정일동지.” 『조선문학』2호.
강인철 편. 1993. 『빛나는 삶』.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72.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권정웅. 1992. 『푸른하늘』. 평양: 문예출판사.
권정웅. 2000. “동지에 대한 추억.” 『조선문학』4호.
금성청년출판사. 198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청소년시절 이야기』.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려숙. 1997.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 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조선문학』2호.
_____. 2000. “룡남산과 더불어 영원할 불멸의 명작들.” 『조선문학』9호.

- 김선일. 2000. “우리 당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심오한 형상.” 『조선문학』6호.
- 김성우. 1999. “전설은 계속된다.” 『조선문학』4호.
- 김순립. 1994. “위대한 인간의 풍모에 대한 전인민적인 매혹.” 『조선문학』2호.
- 김영근. 1999. “영원.” 『조선문학』2호.
- 김일수. 1998.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한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시적 형상.” 『조선문학』3호.
- 김정일. 1983.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_____. 1987.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_____. 1992.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13권.
- _____. 1998.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김정일선집』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준학. 1998. “매혹.” 『조선문학』9호.
- 김철. 1992. “서정서사시: 해돋이.” 『조선문학』3호.

- 김해월. 1995. “위대한 령도자의 형상창조와 작가의 새로운 창작적 지향.” 『조선문학』5호.
- _____. 1999. “수령형상창조와 감정조직문제.” 『조선문학』2호.
- 김홍익. 1999. “한생과 견장.” 『조선문학』2호.
- 남태범. 1995. “그분을 받드는 길에 영광넘친다.” 『조선문학』2호.
- 리 명. 2001. “아침.” 『조선문학』2호.
- 리명숙. 1994.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의 중요한 요구.” 『조선문학』4호.
- 리성덕. 1992. “조국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적화폭—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중의 장편소설 <조선의 힘>에 대하여.” 『조선문학』12호.
- 리수립. 1993. “수령형상문학을 끊임없는 개화발전으로 이끄는 불멸의 사상리론.” 『조선문학』7호.
- 리영삼. 2000. “위인의 친품과 하루.” 『조선문학』5호.
- 리종렬. 1990. 『예지』. 평양: 문예출판사.
- _____. 1997. 『평양은 선언한다』.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리창유. 1998.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 『조선문학』5호.
- _____. 1998. “자주위업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불멸의 형상.” 『조선문학』4호.
- 리호인. 1995. “청춘.” 『조선문학』2호.
- 리희남. 1995. “불멸의 영상.” 『조선문학』10호.
- 머리글. 1993.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의 첫째가는 사명.” 『조선문학』4호.
- _____. 1992.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문학』11호.

- _____. 1997.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는 문학적형상으로 천세만세 길이 전하자.” 『조선문학』4호.
- _____. 1992.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 있는 인간전형을 그리자.” 『조선문학』3호.
- 명일식. 199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따르려는 시대의 념원에 대한 진실한 형상.” 『조선문학』3호.
- _____. 1996.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한 충신의 성격창조.” 『조선문학』4호.
- 문상봉. 1991. “봄날의 미소.” 『조선문학』10호.
- 민병준. 1995.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조선문학』1호.
- 박련희. 2000. “평양에 오시였다.” 『조선문학』6호.
- 박일명. 1999. “전환.” 『조선문학』6호.
- 박춘택. 1993.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 작가의 형상적담구.” 『조선문학』4호.
- _____. 1999.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을 칭송한 세계 혁명적승가문학.” 『조선문학』2호.
- _____. 1999. “주체건축의 새 역사를 펼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 화폭.” 『조선문학』11호.
- 방연승. 1995.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불멸의 서사시.” 『조선문학』6호.
- 백남룡. 1996. 『동해천리』. 평양: 평양출판사
- 백두광명성전설. 1992. “첫번째 위인을 맞다.” 『조선문학』9호.
- _____. 1992. “두번째 위인을 맞다.” 『조선문학』10호.
- _____. 1992. “세번째 위인을 맞다.” 『조선문학』11호.
- _____. 1993. “명당자리.” 『조선문학』9호.
- _____. 1994. “하늘에서 내려온 열여섯 신선.” 『조선문학』

11~12호.

- _____. 1995. “정일봉에 별들이 새겨진 이야기.” 『조선문학』4호.
- _____. 1995. “염분진전설.” 『조선문학』2호.
- _____. 1995. “시대가에서 찾은 유물.” 『조선문학』12호.
- _____. 1999. “무지개타고 내려온 칠색송어.” 『조선문학』3호.
- _____. 2000. “하늘재.” 『조선문학』1호.
- _____. 2000. “신기한 번개와 <승리경>.” 『조선문학』5호.
- 백보흙·송상원. 1997. 『영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손일훈. 1997.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혁명적량만성의 구현.” 『조선문학』9호.
- 신경애. 1999. “그리움의 서정속에 비긴 한해에 대한 감명깊은 시형상.” 『조선문학』3호.
- 신문경. 1999. “송시: 2월의 봄빛.” 『조선문학』2호.
- 안금성. 2000. “요영구 풍경화.” 『조선문학』6호.
- 안희열. 2000. “비범한 예지로 수령형상창조의 원리를 밝히시여.” 『조선문학』9호.
- 오승련. 199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리론에 대하여.” 『조선문학』9호.
- 오영재. 1994.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 『조선문학』8호.
- 오필천. 1995. “영원히 빛나시라.” 『조선문학』4호.
- 윤기덕. 1991. 『수령형상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 장정춘. 1994.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비범한 문학적천품의 빛나는 구현.” 『조선문학』6호.

- 장형준. 1998.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형상에서 거둔 혁신적 성과.” 『조선문학』3호.
- _____. 1999. “령도자의 탄생을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노래한 감명깊은 명작.” 『조선문학』3호.
- 장희숙. 2001. “위대한 정치가 낳은 20세기의 기적에 대한 서사시적 화폭.” 『조선문학』6호.
- 정기중. 1997. 『력사의 대하』.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_____. 1994. “기치는 정시로 간다.” 『조선문학』6호.
-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1999. “잊을수없어라 1998년이여.” 『조선문학』3호.
- 조선중앙통신사. 1981.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조수희. 1994. “7월의 하늘.” 『조선문학』7호.
- 최길상. 1997.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기치.” 『조선문학』1호.
- _____. 199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조선문학』9호.
- _____. 1995.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후대관을 숭고한 높이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시대의 명작.” 『조선문학』11호.
- 최성진. 1994. “새벽.” 『조선문학』2호.
- _____. 1998. “광장의 교향곡.” 『조선문학』2호.
- 탁숙분. 1993. “기쁨.” 『조선문학』10호.
- 한원희. 1994. “신년세배 드리웁니다.” 『조선문학』1호.
- 한재만. 1994. 『김정일: 인간·사상·령도』. 평양: 평양출판사.
- 현승걸. 1988. 『아침해』. 평양: 문예출판사.